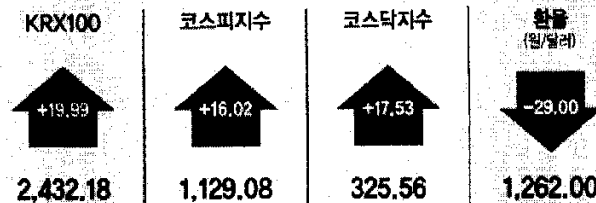


NEWS SUMMARY

2008.11.04

자산운용협회 홍보실



• 유가증권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13590.4	12400.4	-1190.0
외국인	12963.5	12507.8	-455.6
개인	43503.1	45595.2	2092.1
기타	1676.8	1218.8	-458.0

•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337.2	254.0	-83.1
외국인	505.1	628.0	122.9
개인	8349.0	8338.6	-10.3
기타	134.1	102.4	-31.7

• KOSPI 200 선물·옵션 단위: 포인트

종목	증가	전일대비	거래량	미결제약정
11월물	150.55	3.55	409,936	111,053
콜147.5	9.00	-0.75	16,061	41,439
풋147.5	7.75	-2.45	43,162	60,809

• 금리

종류	당일시세(연%)	전일대비
콜	4.09	-0.04
CD(91일)	5.97	-0.01
회사채(AA-3년)	8.33	0.20
국고채(5년)	4.98	0.26

• 환율

단위: 원, 현물거래, 외환은행		
통화	고객 팔 때	고객 살 때
미국 달러	1240.90	1285.10
일본 100엔	1252.17	1296.77
유럽 유로	1585.46	1649.84
중국 위안	175.55	197.71

경기부양 위해 14조 또 쏟아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국회로

정부가 총 14조원 규모 대규모 경기부양대책을 내놴다. 이번 대책에는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중소기업·건설업체를 위한 자금 지원, 수도권 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의 핵심인 용적률 규제를 법정한도인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됐으며, 분양가상한제도 계속 유지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재정 확대와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11·3대책 주요 내용

- 총 14조원 정부 지출, 감세 등에 투입
- 기보·신보의 중소대출보증 48조원까지 확대
-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확대
- 강남 3구 제외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 신은, 기은, 수은에 2조6,500억원 추가 출자
- 외화예금 보장, 중·단과 추가 통화스왑 추진

4% 안팎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공기업 투자를 1조원, 세제지원을 3조원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확대분은 △지방 SOC 확충 4조6000억원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조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조원 △지방재정 지원 확대 1조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연해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에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수출입은행에 6500억원 등을 새로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에는 1000억원을 출자해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세제지원은 민간 설비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규투자를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관련기사 A3·4·5·21·27면

이진우·김태근·안정훈 기자

매 일 경 제

33조 풀어 경기부양 나선다

- 재정지출 11조 확대·3조 추가 감세
-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허용
- 강남·서초·송파 제외 투기지역 해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11조원 확대(공기업 투자 포함)하고 3조원을 추가 감세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고유가 극복 대책'과 감세법안이 19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33조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관련기사 A2,3,4,23면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인 300%(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허용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

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경제부처 장관들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4조6000억원 △중소기업 및 서민층 지원 3조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 지원 확대 1조원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 3000억원 △지방 재정 지원 확대 1조1000억원 등 재정지출을 11조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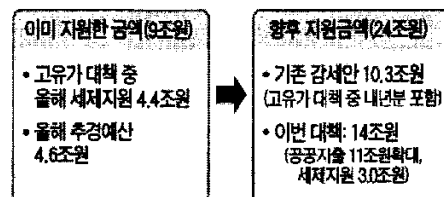
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3조원의 추가 감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1세대 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하던 계획은 전면 보류하기로 했으며,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 내에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해 용적률 제한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하고 임대주택 비율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5000억원, 수출입은행에 3000억원,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새로 출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김연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



GDP대비 경제위기 극복 지원

한국	3.7% (33조원)
미국	2.3% (3170억달러)
일본	3.3% (16.9조엔)
중국	4.0% (1조위안)

“내년 4%대 성장·20만명 고용 지켜라”

50억弗 경상특자 목표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사상 최대 규모의 실물경제 대책이다. 재정지출 확대 11조원(공기업 포함), 추가 감세 3조원 등 모두 14조원이 투입된다.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은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법안까지 합치면 경기부양책 규모는 33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발표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은 두 가지 숫자가 나왔다. 4% 안팎과 3% 내외다. 정부 대책이 없었다면 3% 안팎으로 곤두박질하겠지만 이번 종합대책의 효과로 4% 안팎은 가능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초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5% 안팎으로 예상한 것에서 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봤지만 종합대책을 통해 1%포인트 내려잡는 것으로 방어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14조원 규모인 이날 대책이 0.5%포인트 △9조원가량의 기존 대책이 0.2%포인트 △10조원 규모의 내년도 감세안이 0.3%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33조원의 투입이 성장률 1%포인트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얘기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최근 들어 내년 성장률이 3% 중후반~4%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대책이 없었다면 내년 성장률이 3%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취업자 증가폭 역시 고용시장에 극도로 위축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경우 10만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이다. 실제 9월 신규 취업자 수는 11만2000명(0.5%) 증가하

는 데 그치면서 2005년 2월(8만명) 이후 가장 적었다. 경제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내년 3% 성장에 그친다면 취업자 증가폭이 12만~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는 이번 대책에 따라 현재 목표치인 20만명 안팎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봤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증액되는 만큼 건설분야 취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상수지는 유가가 10달러 하락할 경우 연간 60억~70억달러의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최근 유가 하락기조가 이어지면 5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내고 물가도 경기침체에 따라 3%대로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김연식 기자 sskiss@hankyung.com

中企에 20조이상 추가 지원

외화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

금융대책

정부는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과 보증을 20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화와 똑같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장을 해주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채권 발행 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에 2조7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국책 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업은행의 자본금을 올해와 내년 500억원씩 총 1조원을 확충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추가로 12조원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자본금도 2년에 걸쳐 1조원 늘려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C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은행들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자본금을 6500억원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

금융대책 주요 내용

- 국책은행 추가 출자
- 신보·기보에 5000억원 추가 출연
- 수출입은행, 수출 증기 지원 확대
- 주택금융공사 1000억원 추가 출자
- 외화예금 보장 1인당 5000만원 한도
- 외환기금 15조원→20조5000억원으로 확대

금 지원을 내년에 8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리고 환보림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도 5조원으로 3조5000억원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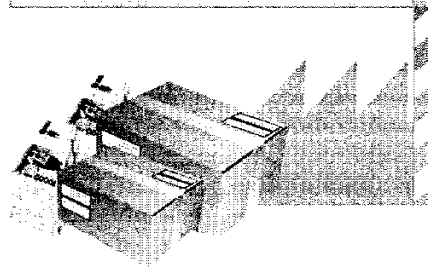
또 신보의 기보에 대한 추가 출연을 통해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42조원에서 4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에도 1000억원을 추가 출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 외화예금 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외 중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기금의 규모도 15조원에서 20조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환시장에서 올해 하루 평균 원달러 환율이 100원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이의 2배 정도를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팀 기자 jih@hankyung.com

공공지출(재정+공기업 지출) 확대 세부 내용 (단위: 조원)	
(1) SOC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6
·교통 및 물류 기반시설 *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점 지원	
·고용효과가 큰 지방 중소기업 개발 등	
·하천정비, 저수지 준설 등 미래 대비 물관리 뒷받침	
(2)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4
·수출자금 보증 등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중기 대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출자	
·신용보증,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자금경제 완화	
·지방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 자금 확대	
·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자금 확대	
(3)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0
·실직자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계·의료 지원 확대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등 서민 내집 마련 지원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확대	
·노인 직업 일자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4)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	0.3
·청년 인턴제 확대(인턴기간 임금의 50% 지원, 최대 1년간)	
·청년·실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 훈련, 취업알선 및 생계비 대부	
·중소기업 취업 인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원정 연수	
(5) 지방재정 지원 확대	1.1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 등	
(6) 유가, 환율 등 거대 변수 조정	-0.4
·유가(120→75달러/배럴), 환율(1000→1100원/달러)	
·국제 발행 및 일시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 소모	
·내국사 감소 등에 따른 외부세 조정	
(7) 공기업 자체 투자 확대	1.0
합계	11



임시세액공제 1년 연장, 3조원 감면효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3~4년으로 연장 검토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놓았다. 기업들에 세 감면 혜택을 늘려 주고 수도권 광중·신·중심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인 '기업 살바루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부세 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부세 공제'란 제조업·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설비투자할 경우 투자비의 7%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임부세 공제 기한 연장과 더불어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 등)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5%, 그 밖의 지역은 투자비의 10% 등으로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내년 9000억원, 2010년 2조1000억원)의 세 감면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 그만큼의 투자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을 육치어왔던 각종 규제도 대거 완화한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 경제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비정규직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현 비정규직법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세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 -수도권 신규 투지도 공제 혜택
비정규직법 개정	-사용기간 2년→3~4년 연장 검토 - '10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1년 연기 검토
규제 완화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대형 건축물 등 허용 -안전장제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의 성장관리권역으로 -환경규제 완화 -미세먼지 총량관리제 실시 보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 대상 기준 재조정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내년 7월로 예정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재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여러 가지 고용 유연화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가 발표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각 기업 공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미세먼지(PM10) 총량관리제'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기준(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30 t→4 t)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대영 기자 ch.rh@hankyung.com

코스닥전용펀드 내년 출시

KRX-중기청 모태펀드 활용... 투자한도 완화 추진

이르면 내년 초 코스닥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코스닥전용펀드가 출시될 전망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증권선물거래소는 모태펀드 출자 형식으로 코스닥 전용 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출범 12년 3개월여만에 지수 300선을 하회하는 등 존폐위기에 내몰리자 이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다.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중기청의 벤처펀드 운용과 관련해 코스닥전용펀드 등장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5년 설정한 71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활용해 코스닥전용펀드 출시를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그동안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은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주식 투자한도' 규정에 걸려 전체 펀드 규모의 5% 이상을 상장업체에 투자할 수 없었다.

즉 전체 펀드 규모가 500억원일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25억원만 상장업체에 투자할 수 있으며 나머지 475억원만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이로 인

해 요즘처럼 공모시장 불황이 이어진 경우 투자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기청이 KRX의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상장주식 투자 한도 규정을 완화할 경우 벤처캐피털 업계는 코스닥 전용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상창 중기청 벤처투자과 사무관은 "KRX 측에서 코스닥전용펀드 운용에 대해 건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KRX의 건의가 아니더라도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털(VC)업계는 중기청의 모태펀드를 활용한 코스닥전용펀드 투자가 가능할 경우 코스닥시장이 현재보다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전용펀드가 등장하면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닥시장에 벤처캐피털 등 장기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코스닥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

2008년 11월 03일 월요일 004면

펀드보수제도 폐지될 듯

금융당국, 직접규제 시사...투자자 부담 경감

금융당국이 펀드보수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규제에 나선다.

그동안의 간접적인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3일 "현행 판매보수 제도를 폐지하거나, 보수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법의 펀드보수 인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펀드 공시나 판매채널 다양화 등 간접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직접 가격인하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간접적 경쟁촉

진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로 판매수수료 인하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판매보수 인하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펀드투자자들이 가입기간에 지속적으로 은행·증권사등 판매사에 내야하는 판매보수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펀드 가격체계가 가입또는 환매시 한번만 내는 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판매보수 위주로 형성돼 장기투자를 할수록 투자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추가급락으로 펀

드 수익률이 급락할때도 교박교박 판매보수를 내야하는 구조가 개선되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5%로 규정된 펀드수수료 상한선을 대폭 낮춰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가령 수수료 상한선이 3%로 제한할 경우, 현재 총보수가 3% 이상인 일부 펀드의 경우 판매보수나 운용보수 등을 대폭 낮출 수 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판매사 등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이같은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펀드별로 위험등급을 매겨 일반 투자자들이 위험정도를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익·김기훈 기자 sipark@

‘글로벌 반등장’엔 펀드도 오를까

국내 성장주 비중 늘리고 이머징 펀드는 반등시 환매 고려를

‘글로벌 반등장에서 펀드 포트폴리오 조정해 볼까.’

장중 한때 890선까지 급락하면서 펀드투자자들을 경악케 했던 코스피 지수가 1129선까지는 회복됐다.

외환위기 때를 포함하더라도 월간 단위 사상 최악의 수익률을 경험하고 맞은 11월 반등장서 기존 펀드가 입자나 새롭게 펀드투자를 생각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회복속도가 빠른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비중을 늘리고 당분간 투자매력보다 리스크가 부각될 이머징펀드는 반등시 환매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반등속도 빠른 국내펀드 비중 늘리고

3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주식형펀드 평균 수익률은 지난달 27일 -48.36%를 저점으로 지난달 말 -39.88%까지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는 3년간이라는 장기투자자들의 수익률도 -11.79%에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

10월 폭락장에서는 해당주펀드 등이 상대적으로 선행했지만 반등장에서는 성장주들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빠를 것이라 전망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이계웅 펀드리서치팀장은 “이달 국내증시는 대외여건 호전 기대감 속에서 반등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수상승시 수익률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성장주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기에 취약한 이머징펀드는 덜고

산이 높았던 만큼 골도 깊었던 이머징펀드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익률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한 달간 이들 중시 등락률은 전체 이머징 마켓이 얼마나 금융위기에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말 기준 연초 이후 러시아펀드와 중국펀드의 수익률은 각각 -73.20%, -58.97%.

현대증권 김용희 연구원은 “이머징마켓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지만 국도의 투자심리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펀드유형	10월27일 기준	10월31일 기준
연초이후	-48.36%	→ -39.88%
최근3년	-11.79%	→ 5.64%

자료: 한국펀드평가

매력이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시장 충격에 실물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원자재가 상승으로 상반기 러브콜을 받았던 러시아펀드의 경우 지금이라도 덜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굿모닝신한증권 이 팀장은 “러시아를 포함해 동유럽지역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소식이 확산됨에 따라 바닥을 성급히 예측하기보다 단기 반등을 활용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기투자라면 세제혜택 펀드도 고려해 볼 만

최소 3년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라면 세제혜택펀드 가입도 고려

해 볼 만하다.

정부는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형펀드와 국내 회사채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http://stat.fundservice.net/>)에서는 각 운용사별로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장기국내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펀드를 볼 수 있다.

장기회사채펀드로는 ‘산은장기회사채1’ ‘푸르덴셜장기회사채형1’ ‘하나UBS장기회사채채권1’ 등이 설정됐으며 ‘푸르덴셜장기회사채형1’의 경우 지난달 28일 설정 이후 7억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

동양증권증권 박용미 연구원은 “3년 이상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세제혜택 펀드를 활용할 만하다”며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기존 투자금액까지 환매할 수 없는 추가 3년 불입 약정보다 신규 계좌 개설이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hug@fnnews.com | 안상미기자

투자스타일 자주 바뀌는 '변덕 펀드' 주의

'갈지자' 운용-수익률도 낮아

일부 주식형펀드들이 최근 1년 새 투자 스타일을 자주 바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동양 유리블리스 우리CS 등 운용사의 일부 상품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잦은 투자 스타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동양중소

형고배당주식1'의 경우 작년에는 가치주와 성장주를 섞은 '혼합형'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중 '성장형'과 '가치형'으로 성격이 달라졌다. 이 펀드는 지난 8월부터 다시 '혼합형' 스타일로 돌아왔다.

'유리그로스&인컴주식'은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지난해는 성장주 가운데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섞은 '혼합성장형'으로 운용됐지만 올해 3월부터는 대형주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형 성장형'으로 변모했다. 이 펀드는 지난 8월부터는 성장주 비중이 낮아지면서 '대형 혼합형'으로 다시 스타일이 달라졌다.

유형 변화가 많은 펀드들은 수익률도 좋지 않다. '동양중소형고배당주식1'과 '유리그로스&인컴주식'은 최근 1년 수익률이 각각 하위 2%와 12%로 처져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서울경제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A20면

역외펀드 투자자들 뿔났다

환차손 손실분 부담압박에

잇단 성토·소송 움직임

펀드 불완전판매로 운용·판매사와 투자자 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환차손으로 투자금을 날린 역외펀드 투자자와 판매사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펀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분을 내야 한다는 은행의 요청에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역외펀드 선물환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소송 모임 카페를 만들며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다.

카페 개설 열흘 만에 모인 피해자가 벌써 140명을 넘었다.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선물환계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가입 1년 만에 원금의 10%도 안 되는 돈을 강제 환매당하게 생겼으며 판매사를 성토하고 있다.

선물환에 가입할 때에는 환율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위험을 해지하는 계약이라고만 설명했지 펀드가 폭락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한 가입자는 "지난해 10월 모 은행에서 판매한 중국 역외펀드 상품에 1,800만원을 투자했는데 가입 1년을 불과 보름 앞두고 은행에서 선물환 손실분 990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금 남은 돈 160만원을 강제 환매한다고 연락이 왔다"며 "선물환에 대한 고지를 왜 해 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니 좌송하라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우리파워인컴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전영준 변호사는 "지금로서는 승소를 자산할 수 없지만 피해자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구체적 증거자료가 나온다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fet@sed.co.kr

유병은기자 rocينات@sed.co.kr

개인판 '키코 사태' 폭탄 터지나

역외펀드·선물환 함께 산 투자자 환손실 떠안아 "은행쪽 환위험 설명 못들어"...'불완전판매' 조사중

한 유통회사 임원이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 신한은행에서 '슈로더-브릭스펀드'에 가입했다. 수익률이 좋았고, "요즘엔 브릭스 펀드가 대세"라는 은행 직원의 말에 솔깃했다. 가입 뒤 직장 동료와 부하직원에게도 추천했다. 그러나 곧 수익률이 무너지더니, 결국엔 최근 반토막 났다. 손절매를 위해 은행을 다시 찾았으나 김씨는 황당한 이야기만 들었다. 수십만원을 은행에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환헤지 때문이라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에다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투자자와 판매사 간에 환 관련 상품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사태에서 보듯 지금까지는 기업 단위의 투자자와 판매사 간의 분쟁이었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와 판매사 간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판매사들이 국외에 설정된 국외투자펀드(역외펀드)를 팔면서 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환 계약 상품을 함께 판매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은 대부분 역외 펀드를 판매하면서 환헤지 상품을 함께 팔았다. 역외펀드는 달러화로 운용되는 만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자는 취지였다. 환헤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절상)할 것으로 보고, 가입 시점 환율보다 20~30원 정도 아래선에서 달러 선물환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환율이 연초 이후 40% 이상 급등하면서 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투자자들은 펀드 손실에다 환손실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김씨처럼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이상인 펀드 투자자가 환손실까지 더해 투자원금은커녕 도리어 판매사 쪽에 돈을 더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돈을 더 내야 하지는 않더라도 기존 펀드의 수익률보다 훨씬 큰 투자 손실을 입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처지에 내몰린 투자자들은 판매

역외펀드 투자자 A씨의 손익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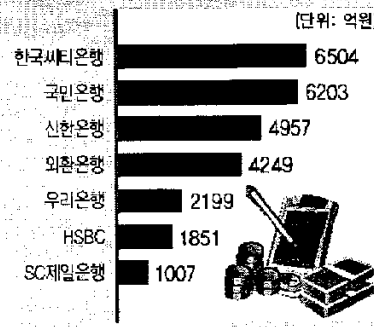
가입 시점	2007년 11월초
약정 환율	900원/달러
투자금액	900만원(미화 1만달러)
1년 수익률	마이너스(-)60%
환매 시점	2008년 11월초
환매 시점 환율	1300원/달러
A씨의 손익	=(1만달러 X 40% X 1300원)+(1만달러 X 900원)-(1만달러 X 1300원) =520만원+(900만원-1300만원)=120만원

사가 환위험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 국민은행에서 퍼델리티 브릭스펀드에 들었던 한 투자자는 "돈을 더 물어줘야 하는 펀드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며 "환위험을 없애준다고 해서 환헤지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도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의 한 간부는 "일부 판매사의 경우 전문가가 봐도 모호할 정도로 선물환 계약서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선물환 상품을

판매사별 역외펀드 판매 실적

*역외펀드 판매시 24개시 가운데 판매실적 상위 7위 판매사의 9월말 현재 역외펀드 순자산가치(NAV) 기준



자료: 자산운용협회

구매하기에 부적절한 투자자에게 이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역외펀드와 관련해 90여개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조만간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의 간부는 "역외펀드 가입시 선물환 가입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며 "환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줬는데, (고객들이) 환손실이 생기자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투자수익+소득공제+비과세 3 혜택 누려라

코스피지수가 1000선에 복귀하면서 증시가 다시 안정을 찾고 있다.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지만 최근 낙폭이 파했던 점을 감안하면 신규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엔 분명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3년 이상 투자하는 국내주식형펀드와 장기 회사채펀드에 세제혜택까지 제시했다. 그렇다면 펀드에 투자해 수익도 올리고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내 펀드에널리스트 4명에게 세제혜택 펀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물어봤다.

◇그래도 분산투자! 배당주펀드 유망=펀드 전문가들은 3년 이상을 투자해야 세제혜택이라는 '플러스알파'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1개 펀드에 집중하기보다 적절히 분산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남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금 은 초과 성과보다 지수와 괴리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며 "성장형펀드와 가치주펀드에 분산하고 계좌도 2~3개로 나눠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3년 안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좌를 나눠놓으면 급전이 필요할 때 환매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배당주펀드와 가치주펀드를 투자 유망펀드로 꼽았다. 이번 세제혜택에는 배당소득 비과세도 있기 때문에 배당주펀드

■ 전문가 4인이 귀뜸하는 '세제혜택펀드 활용법'

세제혜택 펀드 이렇게 투자하라				
	 김남수 삼성증권 연구위원	 박현철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이계웅 굿모닝증권 펀드리서치팀장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
국내 주식형펀드 유망주	성장형펀드·가치주펀드 삼성코리안배그라운드, SH Tops 발효신용마리온펀드	배당주펀드·가치주펀드	가치 배당주펀드(업종 일등 내수주, 시 장지배력 높은 종목)	성장형펀드·가치주펀드 삼성코리안배그라운드, 마리츠배당주펀 드, 한국투자배당주펀드
채권형펀드 유망주	고수익 목표 신용등급 낮은 채권 편입 펀드 피해야	채권형펀드 특화 운용사 선택 (50%이상 국내주신) 현정 규모 편입 (100억원 이상 펀드)	AA급 이상 회사채, A1등급 이상 기업 어음, 회사채형 운용경험 풍부한 운용사 선택(하나HBS자산운용, 동양투신)	BB- 이상 회사채 재무구조, 듀레이션 (3년으로 펀드 만기와 일치)
자산 배분	국내주식형펀드 30% (성장형 15%·가치주 15%) 해외주식형펀드 25% (선진시장 15%·신흥시장 10%) 채권 30%, 이견상환 15%	주식형펀드 70% 채권형펀드 30%	주식형펀드 80% 채권형펀드 20%	주식형 30~40% 채권형펀드 40~60% 현금 등 10~20%

분산투자·배당주펀드 유망... 채권펀드 편입회사채 살펴야

는 세제혜택을 100%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계웅 굿모닝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경기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업종내 1등 내수주나 시장지배력이 높은 주식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배당

주펀드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채권형펀드, 편입된 회사채 꼼꼼히 검토=채권형펀드는 3000만원 한도 내 '거치식'으로 가입해야 소득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편입자산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세제혜택 대상인 장기 회사채펀드는 편입자산의 80% 이상을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한다.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신용등급과 재무구조, 채권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 등 안정성

점검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계웅 팀장은 "불안한 시장상황을 감안해 AA급 이상 회사채나 A1 이상의 CP 등 등급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운용사와 펀드 규모도 중요하다. 박현철 연구원은 "채권형펀드는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평가대상이 된다"며 "이는 운용규모가 100억원 미만이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1억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짤다면=이계웅 팀장은 주식형펀드에 80%, 회사채펀드에 20%를, 박현철 연구원은 주식형펀드 70%, 채권형펀드 30% 비중으로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반면 양은희 연구원은 주식형펀드 30~40%, 채권형펀드 40~60%, 현금 10~20%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했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 채권형에 6000만원을 넣고 나머지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두고 계좌이체로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라는 설명이다. 김남수 연구원은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에 55%대30% 비율로 투자하되 분산 차원에서 해외주식형펀드와 대안상품 투자도 고려하라고 충고했다.

임상연·박성희 기자 syilm@

사라졌던 'Strong Buy' 돌아왔네

<적극 매수>

10월 적극매수 의견 32건...전달의 3배

'사라졌던 적극 매수(Strong Buy)가 돌아왔다.'

증시 침체로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됐지만 '적극 매수'를 권하는 애널리스트 의견이 속속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각 증권사들은 개별 종목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투자의견을 발표하는데 '적극 매수'는 매수하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집계된 적극 매수 의견은 32건으로 9월(11건)과 8월(13건)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유진투자증권은 LG패션 CJ제일제당 CJCGV 제일기획 현대차 현대건설 기아차에 대한 의견을 최고 등급으로 올렸으며 3일 우리투자증권도 영원무역에 대해 적극 매수 의견을 냈다.

종목에 대한 평가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기업 펀더멘털이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주가는 단기간 급락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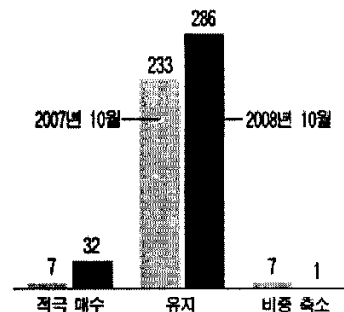
윤효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기업이익을 감안하면 최근 주가 급락은 비정상적이고 매수 적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마다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철학(?)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투자 의견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A기업에 대해 1년 뒤 주당순이익(EPS)을 추정한 뒤 여기에 시장 평균·업종 평균·역사적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곱해 적정주가(목표 주가)를 정할 수 있다. 이때 전체 증시가 떨어지면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업이 창출한 현금 흐름을 모두 예측해 이를 할인하는 잉여현금흐름할인(DCF) 모델을 사용하면 기업 펀더멘털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 한 목표주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따라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적정한' 주가와 차이가 커져 '적극 매

투자 의견 비교



수하라'는 투자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박희운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 PER를 적용하면 목표가가 주가를 따라가지만 기업 실적에 여전히 견조하다면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목표가를 낮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 증권사 연구원은 "시장을 따라서 목표가를 조정하는 편이 부담이 덜하다"며 "'적극매수' 또는 '매도'처럼 뚜렷한 의견은 소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외국인 순매도 세력 살펴보니...

조세회피지역 헤지펀드 청산 매물 많아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맨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국적의 외국인 순매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순매도의 주도 세력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헤지펀드 청산에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는 관련 매물이 수급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 5281억원어치를 순매도, 작년 8월 이후 16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 국적 외국인이 가장 많은 3조 1487억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헤지펀드의 주요 설립 지역인 케이맨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도 각각 1조 1436억원, 1조 289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들 3개국의 순매도(5조 3212억원)가 전체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넘어선 셈이다.

특히 룩셈부르크 국적 외국인의 순매도는 2007년 이후 최대며 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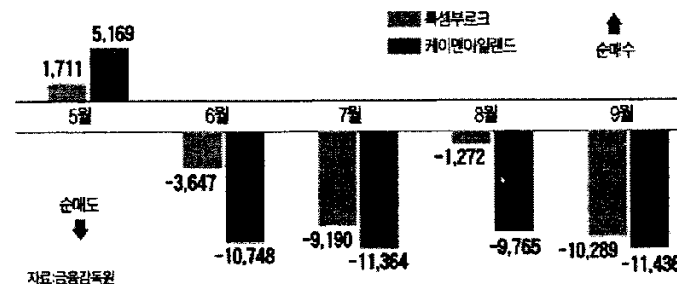
맨아일랜드와 합한 순매도 규모도 작년 8월 이후 최대였다.

반면 9월 한 달간 영국계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1533억원에 그쳤으며 아랍에미리트(5752억원) 프랑스(5413억원) 싱가포르(2797억원) 등은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수민 현대증권 연구원은 "9월은 국내 증시가 미국계 장기 투자 외국인과 헤지펀드의 동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10월 국적별 외국인 매매 동향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순매도(4조 6035억원) 중 상당 부분은 헤지펀드 관련 매물로 추정되고 있다.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나 수익률 부진을 이유로 헤지펀드 청산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승원 UBS 전무는 "지난달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롱쇼트(상관관계가 있는 주식 사고 팔기) 성격의 헤지펀드들은 국내 투자를 크게 줄이거나 일

주요 조세회피 지역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 (단위: 억원)



부 펀드는 아예 한국을 떠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쇼트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의 재매수)을 중심으로 사흘간 350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외국인이 3일 444억원 순매도로 돌변했다. 유 연구원은 "12월 결산 헤지펀드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관련 청산 매물이 수급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미국계 부자은행 주식영업

본부장도 "평균적으로 결산기 6주 전까지는 운용사에 펀드 청산을 알려야 한다"며 "헤지펀드 청산 매물이 이달에도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 투자 성향을 지닌 외국인의 매수 재개도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전무는 "일시 반등으로 코스피지수 1200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경기침체나 기업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전해 사려 들어올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개미 매매패턴 '직접 투자' 전환



리스크 회피 경향... "고객예탁금 증가 전망"

개인투자자들이 단기간 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여유자금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경향으로 매매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용이나 미수를 통한 레버리지(차입) 활용 투자는 가급적 자양하는 추세가 뚜렷해진 것.

대우증권 한지환 연구원은 3일 "개인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 판단에 의해 투자를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이는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높은 레

버리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신용잔고는 지난해 6월 말 7조원에서 올해 6월 말에는 4조원으로 감소한 후 현재는 2조원 수준까지 줄었다. 반면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를 위한 순수예탁금 누적액은 8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개인 순매수 누적금액도 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지난 10월 들어 빠른 변화를 보였다. 지난 10월 30일 하루만 보더라도 고객 예탁금은

전일 대비 3385억원 늘어난 9조8333억 5000만원, 위탁자 미수금은 전일보다 511억원 감소한 1752억원 규모다. 신용융자 잔고도 코스피시장에서 지난 10월 31일에는 전일보다 885억원 감소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증시전문가들은 안정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현재 증시상황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자금이 예탁금으로 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한 일부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물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연구원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투자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레버리지를 배제한 건전한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동안 신용이나 미수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대신 순매수를 위한 고객예탁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 이나라 연구원은 "매물 자체가 정리된 부문은 긍정적이지만 현 상황이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직 건전성이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hi8129@fnnews.com | 노현섭기자

“사이드카 남발 심해”

지난달 22번... 거래소도 개선 고민

최근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사이드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 1000선이 붕괴하는 등 10월 증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코스피시장에서 12번, 코스닥 시장에서는 10번 등 모두 22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올 한해로 따져보면 코스피시장 17회, 코스닥시장 15회로 사이드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가 가장 많이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급등 혹은 급락 등 증시가 급격하게 변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를 5분 정도 중단시키는 일종의 비상조치다. 전일 증가보다 선물가격이 코스피시장은 5% 이상, 코스닥시장은 6%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1996년, 2001년 코스피·코스닥 선물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각각 도입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주 발동되면서 비상조치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루 걸러 한번씩 발동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 대신에 사이드카를 내놓은 거래소가 1등기업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 정도다. 한마디로 긴장감이 확 떨어진 것이다. 실제 코스피지수 1000선을 오르내리던 지난달 24일과 30일에는 각각 코스피200선물의 급락·급등으로 인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

한상범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드카 발동 기준을 5~6% 급등락에 맞춰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기준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상승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고 사이드카를 발동할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는 매수 우위일 때만 발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거래소도 문제점을 인식, 제도개선방안을 고민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들어 워낙 증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생긴 문제”라면서 “지금 당장 편의를 위해 사이드카 발동 요건을 뜯어 고치기보다는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엮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증권 계좌수 다시 늘었다

증시가 반등 국면을 이어가자 증권 계좌 수가 증가하고 있다.

3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1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있고 최근 6개월간 거래가 있는 활동 증권 계좌 수는 지난 달 31일 1186만여개로 하루 만에 2만 개 이상 증가했다. 이는 협회가 집계 를 시작한 작년 6월 이후 최대치다.

개인 고객이 많은 온라인증권사의 신규 계좌 개설도 급속도로 늘었다.

지난주 키움증권의 신규 개설 계

좌 수는 지난달 첫주에 비해 257% 나 급증했다. 이트레이드와 한국투자증권의 뱅키스에 신규 개설된 계좌 수도 같은 기간 각각 168%, 163% 증가했다.

이같이 증권 계좌가 전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 공조 등 금융위기 대책을 집행하고 있고,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등에 힘입어 주가가 반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가 매수세가 살아나

덕분으로 풀이된다.

이선엽 국토농신한증권 연구원은 “활동 계좌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동안 투자를 않고 관망하던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서정광 LIG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나 현대중공업 등 단기간에 급락한 우량주에 대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며 “자금을 확충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은행예금에서 이탈한 자금이 증시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재우/조재희 기자 hu@hankyung.com

증권사 '수수료 인하' 언제까지 외면?

한국투자 현대증권 대우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식과 선물옵션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춘다.

이는 3일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가 협회비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12월 말까지 주식은 0.0008208%포인트, 선물은 0.0001368%포인트, 옵션은 0.000684%포인트씩 주식과 선물 옵션 위탁거래수수료를 추가 인하

한다”고 밝혔다.

증권사	인하 폭 (단위=%P)		
	주식	선물	옵션
한국·현대·대신증권	0.0008208	0.0001368	0.000684
대우증권	0.000821	0.000137	0.000684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1억원으로 주식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약 7471원 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증권과 대신증권도 이날 같

은 수준으로 인하 조치를 했다.

반면 한화증권은 장내주식 위탁수수료율을 인하한 대신 주식선물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협회비 면제에도 불구하고 SK증권 동부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기존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SK증권 관계자는 “수수료를 인하가 대형사 위주로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증시 불황으로 인력감축·연봉삭감등 구조조정 한파

외국계 증권사들 '시련의 계절'

고액 연봉에 우수한 근무 여건 등으로 직장 선호도 선두권에 꼽혔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이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파산한 투자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외국계 증권사도 인력감축·연봉삭감 등 구조조정의 한파에 직면한 것. 국내 증시 불황으로 급격한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본사 차원에서 '비용절감'에 나서면서 허리띠 졸라매기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크레다리요네증권(CLSA) 서울지점은 최근 전체의 85%에 달하는 직원들이 연봉 25%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처음에는 매니저급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 삭감에 들어갔지만 시장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전 직원이 참여하게 된 것. CLSA 증권의 한 관계자는 "증시 상황이 안 좋고 본사 차원에서 비용 절감을 계획하고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니어급 직원뿐만 아니라 리서치 주니어, 계약직 등 전 부서에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럽계 금융회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 서울지점에서도 최근

RA(Research Assistant) 한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사정에 정통한 이 증권사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본사 차원의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전 세계 CS지점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할 것이 결정됐다"며 "이에 따라 서울지점 RA분야에서 한 명이 회사를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S증권 서울지점 인사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사했을 것"이라며 "서울지점에는 (인력감축계획 관련)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봉삭감이나 인원감축에 나서지

CLSA 임금 25% '썩둑'

JP모건등 충원계획 미뤄

직원들 고용 불안감까지



않는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들도 인력충원계획에는 답보 상태다. JP모건증권 서울지점의 한 관계자는 "인력 충원계획은 (당분간) 없다"며 "본사에서는 임금동결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씨티그룹·ABN암로·메릴린치 등 서울에 지점을 둔 외국계 업체들도 "향후 인원충원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직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시장침체로 국내 증권사들의 인력 수요는 급감하고 베어스턴스 파산 등으로 글로벌 인력 공급은 풍부해져 실력이 없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는 것.

외국계 A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내년 재계약할 앞두고 업무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다수의 인력이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회사에 돌고 있다"며 "과거 전망의 대상이었던 외국계 증권사가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한탄했다.

/황정수기자 pao@sed.co.kr



“증시 한두 차례 더 출렁거릴 수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swap·상호교환) 체결에 증시가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상승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국내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국가 신용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국내 금융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지만 부동산 및 은행 부실로 인한 국내 원화유동성 경색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 증시가 더 출렁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 ‘통화스와프 이후’ 전망

국내 리서치센터장이 보는 증시 전망

	김학주 삼성증권 상무	박종현 우리투자증권 상무	서명석 동양증권증권 상무	서용원 현대증권 상무	이재광 한국투자증권 상무	이종우 HMC투자증권 상무	정영훈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통화스와프 효과	달러 유동성 해결. 이미 주가에 반영.	한국 신용도 선진국 과 비슷하게 인정.	무역흑자 다해져 11 월까지 영향.	금융유동성으로 인 한 추가하락 없을 것.	원화유동성 미해결 이라는 점에선 한계.	11월 초 효과 소멸.	원화 환투기 대상 에서 제외.
주가전망	1320선에서 개걸 음 천 후 내년 4월 반등.	1000~1300에서 개 걸음 후 내년 2분 기 반등.	1400~1500까지 갔 다가 내년 초 한 차 레 고비.	1200까지는 오른 후 내년 1분기 중 반등.	정책이 빠르게 나 오면 1200 이상 상 승도 가능.	900~1200. 최소 내 년 2분기 이후 추 세 상승 가능.	910~1300. 내년 여 름쯤 추세 반등.
주가 더 오르려면	정부가 부동산 부 실을 빨리 확정 지 어 줘야 함.	한은 기준금리 추 가 인하.	정부의 국민과의 신뢰 구축. 경기부 양속도 조절.	PF대출 확대범위 정부가 조율.	소비절약 정책. 한 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제조업 관련 지원 정책 보강.	언론의 정책에 대 한 우호적인 자세.
유망업종	제약·음식료·통신 ·보험	증권·유통·음식료	철강·전기·자동차	통신·음식료·제약	조선·기계	낙폭과대 대형주 ·증권주	시장 신뢰를 확보 한 업종 대표주.

①향후 주가전망은?

주가가 1000~1300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박종현 우리투자증권 상무는 “외국인도 1000선을 과도한 매도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공세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1000~1300 사이에서 한동안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서명석 동양증권증권 상무는 “11·12월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연말까지 주가가 1400~15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주가 역시 한두 차례 더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상무는 “오는 4분기에 한 차례 출렁거린 후 지루하게 떨어져 1분기에 다시 바닥을 본 후 3분기부터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TMF 때 1차 저점(350)보다 2차 저점(280)이 더 낮았듯이 이번에도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②주가 추가상승에 필요한 요인은?

환율이 안정되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금리 추가인하 등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 점도 주가엔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됐다. 박종현 우리투자증권 상무는 “3일 정부의 경제종합대책은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더 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 등 조치가 뒤따라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원 현대증권 상무는 “정부가 말했던 기업이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은행의 PF대출을 조율해주면 시장이 안정을 찾고 증시도 상승의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원화유동성 해결·금리 추가인하 등 필요 주가 당분간 1000~1300선에서 움직일 것”

고 말했다.

③통화스와프 체결 효과 언제까지?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 체결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화시킬 것으로 분석했지만, ‘악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이었다.

서명석 동양증권증권 상무는 “하반기 고환율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효과가 더해져서 통화스와프 체결은 11월까지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부실 등 국내 원화유동성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

등이 뒤따라줘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상무는 “실제 달러 공급이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높은 가격에 달러가 거래되고 있다”며 “11월 초반에 통화스와프 체결 효과는 희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④경기방어·대표종목 추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경기방어업종인 통신·음식료·제약 업종을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추천했다. 서용원 현대증권 상무는 경기 방어주이면서 낙폭이 컸던 SK텔레콤

·KT&G·유한양행과 꾸준한 매출이 예상되는 CJCGV 등을 추천했다. 김학주 삼성증권 상무는 “대만업체 등 한계기업의 도산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봤다. 이재광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컸던 조선·기계주의 주가 회복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주와 경기방어적 성격을 가진 음식료업종이 유망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나마 믿을 만한 종목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정영훈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선전지처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한 업종 대표주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반등장, 철강주 끌고 車-증권주 민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 10곳에 추천 종목 물어봤더니...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올랐다. 11월 첫 거래일인 3일 코스피는 16.02포인트(1.44%) 오른 1,129.08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자 본격적인 증시 반등 신호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폭락장에서 입은 손실을 본격적으로 만회하려는 투자자들은 증시 반등을 주도할 종목, 업종에 주목하고 있다.

3일 주요 증권사 10곳의 리서치센터에 추천받은 결과 반등장을 이끌 종목으로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철강업종이 꼽혔다.

동양증권증권 투자전략팀 김승현 포트폴리오팀장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있어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률 개선이 기대된다”며 “그동안 하락폭이 과도했던 반금 주가도 매력적”이라고 철강업종을 추천한 이유를 설명했다. 철강·금속 업종지수는 지난 한 달간 21.91% 하락했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함께 부진을 면치 못하던 증권업종도 유망업종으로 꼽혔다. HMC투자증권은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거래가 늘면 증권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 경기방어 업종인 통신업도 3곳에서 추천했다.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통신 소비는 경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유지되기 때문



반등 시 유망 업종 및 종목

증권사	반등 시 유망 업종	반등 시 유망 종목
국토농신한증권	반도체 IT부품 통신	삼성전자 소디프신소재 LG데이콤
대신증권	대형주회사 보험 태양광 관련주	LG 현대해상 소디프신소재
대우증권	필수소비재 통신서비스 에너지	CJ제일제당 LG SK에너지
동양증권증권	철강 전기 자동차	현대제철 한국전력 현대차
메리츠증권	통신서비스 유통유통 음식료	LG데이콤 한진KPS 농심
삼성증권	반도체 자동차 제약	삼성전자 현대차 유한양행
우리투자증권	증권 조선 화학철강	현대증권업 포스코 SK에너지
하나대투증권	철강 증권 전기전자	현대제철 미래에셋증권 LG전자
현대증권	조선 철강 자동차	현대미포조선 현대제철 현대차
HMC투자증권	종합상사 증권 보험	대우인태내셔널 키움증권 현대해상

자료: 각 증권사

현대제철-현대자동차 등 많이 꼽아

“일시적 반등... 투자 신중을” 지적도

이다.

철강업종이 반등 주도 종목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반등 시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가장 많은 증권사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현대차도 증권사 3곳에서 추천했다. 현대차는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고, 경쟁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의 빅3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일본 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에 최근 원-엔 환율의 상승은 큰 호재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내년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삼성전자와 주가 하락폭이 컸던 소디프신소재도 추천을 받았다. LG데이콤, SK

에너지, LG, 현대해상 등도 2곳 이상의 증권사로부터 반등장에서 수익을 낼 종목으로 추천됐다.

증시는 상승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서기 전에 실물경기 침체 등 남아 있는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우증권 이승우 연구위원은 “최근 증시 반등은 정부의 각종 정책 대응에 따른 반등이며 일시적으로 1,200 선까지 반등한 이후에 장이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주가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ika7@donga.com

증시 모처럼 반등에 펀드투자자 '안도'

일반주식펀드 주간 5.43% 수익

급락하던 국내 증시가 며칠 동안 반등하면서 반토막 난 펀드로 고통받던 펀드 투자자들이 모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3일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의 자료를 보면, 10월31일 기준 국내주식형펀드 가운데 선정액 10억원 이상인 455개 일반주식펀드의 주간 평균수익률은 5.43%를 기록해 10월 초 이후 5주 만에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코스피200지수를 따르는 인덱스펀드(87개)와 배당주펀드(33개)도 수익률이 4.59%와 2.82%로 양호했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인 363개 국내주식형펀드 가운데 269개는 코스피지수의 주간 상승률인 3.34%를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한국 은행의 금리 대폭 인하와 한-미 통화스와

프 협정 체결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고 국내 주식시장이 급반등한 덕분이다.

10월 초 1400대로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금융위기에 경기침체 공포까지 겹치면서 한때 장중 800선대로 떨어져 월초 대비 낙폭이 38%로 벌어졌으나, 그 뒤 급반등해 1100선을 회복하면서 낙폭을 23%로 줄였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형펀드의 1년 평균 수익률은 -45.66%로 여전히 부진하지만 한때 -53%까지 추락했던 데 비해선 많이 호전됐다. 이계웅 굿모닝한증권펀드리서치 팀장은 "악화일로에서 벗어났으나 지금의 반등이 코스피지수 1200선까지 갈지, 1300선까지 의견이 제각각"이라며 "미국에서 금융 쪽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건설주와 은행주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한 상황이라 지금의 반등 국면이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세계일보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017면

작년 열풍 주도 대형펀드 '반토막'

인사이트 펀드 등 수익률 1년새 -65%까지 하락

지난해 말 투자자들의 큰 인기를 끈 초대형 해외펀드들이 1년 새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펀드평가사인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펀드 열풍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조원 이상을 끌어모은 해외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미래에셋인사이트혼합형자)'를 비롯해 슈로더투신운용의 '슈로더브릭스펀드',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의 '봉쥬르브릭스펀드'와 '봉쥬르차이나펀드' 등 모두 4개다.

재투자분을 감안한 설정액 기준 인사이트펀드는 4조8600억원, 슈로더브릭스펀드는 4조2700억원이 물렸고 봉쥬르브릭스펀드와 봉쥬

르차이나펀드에도 1조4500억원과 1조2300억원이 유입됐다.

이들 펀드는 지난해 말 시중 자금을 모두 끌어당기시피 하며 펀드 열풍을 주도했는데 해외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하락하던 올해 상반기까지도 인기는 이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과 함께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해외 증시들이 폭락하면서 이들 초대형 해외펀드는 지난해 10월 말 대비 현재 모두 반 토막이 났다.

가장 부진한 봉쥬르차이나펀드의 1년 수익률은 10월31일 현재 -65%까지 하락했으며, 봉쥬르브릭스펀드는 -61%를 기록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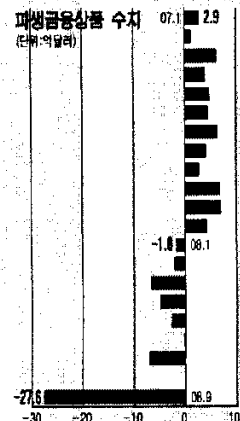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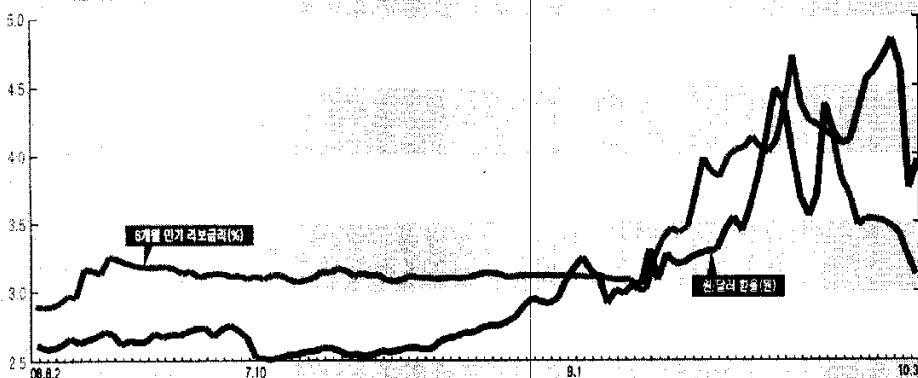
최현태 기자

국내 기업이 지난 9월 외국인과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과 리보금리가 급등하면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과 통화스와프(CRS) 거래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환율이 건점을 수 없이 상승하면서 NDF를 판 국내 금융회사의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웠다. 국내 금융사들은

결제를 위해 다시 달러 매수에 나섰고 이는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CRS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한 국내 금융사들은 리보금리 급등에 속절없이 당했다. 원화 고정금리를 받는 대신 리보금리가 변동하는 대로 지급하는 달러이자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파생상품 거래손실 '눈덩이'

6개월 만기 리보금리 및 원/달러 환율 추이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같은 NDF와 통화스와프 등 파생상품 거래손실로 실제 외국으로 빠져나간 돈이 지난 9월 90억5960만달러에 달한다. 반면 이익이 발생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받은 액수는 62억9520만달러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파생상품 순거래손실로 27억6440만달러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3조원이 넘는다. 월간 손실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며 올해 입은 파생상품 거래손실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이중에는 이익이나 손실이 아니라 옵션을 사거나 팔면서 주고 받은 대가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국내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외국 금융회사와의 거래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다. 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자금이 오간 확정손실만을 따진 것이다. 평가손실을 포함할 경우 국내 금융회사들이 입은 손실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올들어 8월 한달만 빼고는 매달 외국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 그로 인한 외화의 순유출 규모가 1~4월 53억달러에 달한다.

국내기업 9월중 28억弗 확정손실 사상최대

리보금리 급등에 속수무책... 10월엔 더 클듯

지난해 순유입액 55억달러의 대부분을 토해냈다.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환율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손실분에 대해 외국 금융회사에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달러매수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환율이 오르면서 손실이 커지고, 손실을 결제하기 위해 또 달러를 매수하는 악순환이 나타난 것이다.

환율이 올들어 크게 오른 것이 파생상품 손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9월 금융위기에 이어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연초 930원이던 환율은 9월말 1200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오른 만큼 NDF에서 달러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던 국내 금융회사의 손실도 확대됐다. 연초에 NDF 6개월물 계약을 했다면 9월 만기 시점에는 무려 1달러당 270원가량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1000만달러(94억원) 계약을 했다면 우리 돈으로 약 27억원의 손해를 봤다. NDF는 만기에 환율차익만 청산하는 거

래다.

한은 관계자는 "9월 들어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NDF 등에서 달러매도 포지션에 있던 국내 금융회사의 손실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며 "파생금융상품 수치 순유출분 가운데 상당부분이 NDF 관련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산용경색으로 급등한 리보금리도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손실을 키웠다. 3% 초반에서 움직이던 만기 6개월 리보금리는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폭등했다. 9월17일 하루에만 0.23%포인트가 상승해 3.25%로 치솟은 뒤 24일 3.70%, 26일 3.87%, 금기가 30일에는 3.98%까지 상승했다. 리보 6개월물 금리는 10월 들어서는 4.72%까지 올랐다.

리보금리 상승은 CRS 계약의 이자부담 확대로 연결됐다. 국내 은행이 외국 금융회사에 달러 원금을 주고 원화 원금을 교환하는 거래를 할 경우 국내 은행은 외국 금융회사에 리보 6개월물이나 3개월 이자를 지급한다. 대신 국내 은행은

최초 계약시점의 원화 고정금리를 받는다. 이 때문에 리보금리가 오를수록 달러이자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다.

한은 관계자는 "CRS 거래에서 리보금리가 오르면서 9월에 이자교환이 이뤄지는 금융회사들의 달러이자 지급이 늘었다"며 "분기말 요일까지 겹쳐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손실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은행이 기업과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KO)거래를 하고 외국 금융회사와 헤지거래를 한 것도 손실을 키웠다. 그러나 NDF와 CRS 관련 손실에 비하면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문제는 파생상품 손실이 9월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달에도 환율과 리보금리가 급등락을 지속했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큰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10월 들어 환율은 1467원까지 상승했고 리보금리(6개월물)도 10월말 3%대 중반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원 중반까지는 4% 중반까지 치솟았다.

한은 관계자는 "10월에도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수치가 순유출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이 오르수록 평가손실이 확대되고 실현손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은지 기자 eisome@

현대모비스, 오토넷 합병

ELW·ELS 가격변화 불가피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토넷을 합병키로 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주가연계증권(ELS)의 가격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31일 현대오토넷을 1대 0.0397125 비율로 합병하겠다고 밝혔다. 합병 기준일은 2009년 1월31일이며 이에 앞서 1월18일 현대오토넷 주식은 매매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현대오토넷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 최종거래일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현재 현대오토넷의 파생수합병으로 만기일이 단축되는 ELW는 '맥쿼리8472현대오토넷' (2009년 3월27일) '한국8441현대오토넷' (2009년 3월2일) '미래8392현대오토넷' (2009년 2월24일) '교보8174현대오토넷' (2009년 1월20일) '한국8215현대오토넷' (2009년 1월19일)이다.

이 가운데 만기일이 근접한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한달 이상 거래 가능한 날짜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산 가격과 상관없이 잔존기간 축소로 시간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

유지은 맥쿼리증권 이사는 "3월25일까지 거래할 수 있는 '맥쿼리8472현대오토넷'은 1월25일로 거래일이 2개월로 급속히 줄게 됐다"며 "이에 따라 시간가치도 급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만기일 단축되는 현대오토넷 ELW			
종목명	만기일	발행사	LP
맥쿼리8472현대오토넷	2009-03-27	맥쿼리	맥쿼리
한국8441현대오토넷	2009-03-02	한국	한국
미래8392현대오토넷	2009-02-24	미래	미래에셋
교보8174현대오토넷	2009-01-20	교보	맥쿼리
한국8215현대오토넷	2009-01-19	한국	한국

무엇보다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은 만기 한달 전 중단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맥쿼리 ELW의 경우 LP는 12월18일까지만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 후엔 유동성 공급이 중단돼 대도도 어려워진다.

ELS의 경우 현재 현대오토넷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없다. 현대모비스에 연계된 ELS는 합병 후 현대모비스 주가에 따라 가격변동이 이뤄진다. 통상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합병 1주일 전 주가전환비율을 반영해 거래 기준가를 발표하면 '백투백' 헤지거래를 한 경우 증권사는 상대회사와 가격을 협의해 ELS 최초 기준가를 변경한다.

채권평가업계에 따르면 3일 현재 현대모비스를 기초자산으로 합병일인 내년 1월3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ELS(공·사모 포함)는 모두 52개다.

박성희 기자 stargirl@

KB운용 ETF 화려한 신고식

KB자산운용(대표 이원기)의 첫 상장 지수펀드(ETF)인 'KStar 5대그룹주 E TF'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KStar 5대그룹주 E TF'는 지난달 22일 상장된 이후 31일까지 4.82%의 수익률을 올렸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1.9%, 코스피200지수가 0.43% 하락한 데 비하면 뛰어난 성적이다. 거래량도 하루 11만주 이상 되면서 코스피

코스피 1.9% 빠질때 수익률 4.8%나 올려

200과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ETF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KStar 5대그룹주 E TF'는 삼성·SK·LG·포스코·현대차 등 국내 5대그룹의 대형 우량주 25개 종목 지수 'MF Top 5그룹 인덱스'의 수익률을 추적하는 상품이다.

KB자산운용은 "이들 종목은 기관 및 연기금 등의 주매수 종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금융·건설비중이 낮은 게 강점"이라며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는 증시 상황과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요인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희 기자 stargirl@

외환위기 때의 '대박신화' 다시 한번?

금리·부동산 상황 많이 달라...“관망이 최선 전략”

국내의 금융 불안 속에서 10년 전 외환위기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인 동시에, 거꾸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한탕주의식 '낙관'도 있다. 외환위기의 학습효과가 '바닥론'과 대박 신화를 낳았던 것이다. 주가와 아파트 값이 바닥을 치고 1~2년 안에 급격하게 회복하면서 단기 금등해 한몫 잡는 대박 기회가 또 다시 열릴까?

지금은 서민까지 펀드투자...대부분 여유자금없어
부동산 저가매입하더라도 “비싸게 사줄 사람 없어”

■ **중산층도 여력이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산가는 물론 중산 서민층까지 펀드 투자에 나섰다가 원통 물려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재테크 개념이 일반화되기 전이라, 서민들의 투자처로는 은행 예·적금이 거의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은 1천만명이 이상이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등 대부분이 주가 관련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자산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100억원대의 자산을 펀드에 투자해 50억원의 평가손실을 본 부자가 있을 정도라고, 한 시중은행 피비(PB)는 전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던 중산층은 대출에 따른 상환부담에 더해 가계

여유자금에 모두 펀드에 투자돼 있어 양쪽으로 위협당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은 기회를 잡을 여력도 없어 '대박 신화'가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 **금리 및 부동산시장 흐름 달라져** 경제 환경의 차이도 크다. 아이엠에프의 고금리정책에 따라 1997년 말~1998년 초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17%대로 급등했다. 지금도 일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금리가 7%를 웃돌 정도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지금은 저금리 시대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7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엔 고금리로 한몫 챙길 기회를



kimy@hanc.co.kr

잡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예전 같지 않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나라 베이비붐이 시작된 1957~58년생이 딱 40대에 접어들면서 아파트 수요가 새로 늘어나기 시작할 때였다. 40대는 소비 여력이 있고, 아파

트 수요도 큰 연령대로, 2000년대 초 아파트 값 상승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제는 40대에 접어드는 인구가 점차 줄고 있어 부동산 투자는 점차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제교육업체 에듀머니의 제윤경 대표

는 “벌써부터 내년이 아파트 매입의 기회가 아닌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며 “저가매입은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중산층도 펀드에 물려 여력이 없는 마당이라 매수세력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외환위기 당시에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기업들이 큰 혜택을 봤지만 지금은 그 혜택이 크질 않다. 아시아 몇몇 나라에 국한된 외환위기와 달리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경기 후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 **살아남아야 기회도 있다** 투자전략가들은 ‘관망’을 첫번째 전략으로 꼽고 있다. 위험 감수(리스크 테이킹)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신한은행 김은정 분당파비센터 팀장은 “어느 하나도 확실한 게 없는 상황이라 시장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 박승안 파비팀장도 “지금은 지키고 참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며 “특히, 회사에서 퇴출되고 금리가 요동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부양책 타고 금리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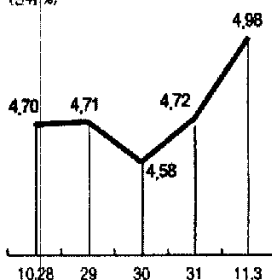
적자국채 증가·외국인 매도세가 영향 미친듯

오는 7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채권 금리가 이틀째 급등,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도 재정적자 확대 방안에 따른 국채 발행물량 증가 부담이 주원인으로 관측되나 최근 외국인들이 채권 선·현물시장에서 매도세를 크게 늘리고 있어 예상 밖이다. 반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이를 연속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3일 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주 말보다 0.26%포인트 급등한 연 4.98%를 기록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0.24%포인트나 뛰 4.71%를 나타냈다. 3년 만기 국채선물은 109.06으로 무려 52틱이나 급락했다. 국고채 5년물과 3년물은 지난 10월31일 각각 0.14%포인트, 0.08%포인트 급등했다.

금리가 이를 연속 급등한 것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적자재정을 펴려했기 때문이다. 즉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대규모 국채가 발행돼 채권 공급물량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미리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5년만기 국고채 금리 추이
(단위: %)



이날 입찰된 국채 3년물도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평소보다 물량 규모(1조9,500억원)가 큰 만큼 입찰 뒤 헤지 물량이 시장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신동준 현대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국채 발행량이 30%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당분간 국채 부담으로 채권 값이 약세(채권가치 하락)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3,000계약 이상의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도 금리상승을 부추겼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이 10월 상장채권을 6조원 이상 순매도하는 등 채

권현물시장에서 '팔자'로 일관한 데 이어 그동안 순매수를 보였던 국채선물시장에서도 지난주부터 순매도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대규모 현물채권 매도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고 국채선물 매도는 이익 실현으로 파악된다"며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주식시장에서 순매수에 나선 외국인의 투자와 엮박자를 보여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 역시 외국인의 현물채권 매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의 보유채권은 43조9,000억원으로 주로 유럽계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외국계 은행의 자금사정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매도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선물매도는 그동안 많이 매수한 데다 선물이 고평가여서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는 채권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0.01%포인트 하락한 5.97%를 기록했다.

/홍준석기자 jshong2sed.co.kr

미래에셋 효성·기아차 대거 처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달 자사 펀드들이 많이 편입했던 대표 종목들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3일 효성과 기아자동차 지분을 각각 4.67%포인트, 3.58%포인트가량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또 GS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주 지분도 각각 3.43%포인트, 1.9%포인트 축소했다. 동양제철화학(-0.79%포인트), 서울반도체(-0.2%포인트) 등 소위 '미래에셋주'로 불리며 회사의 대표적인 편입종목으로 알려진 종목이 매도 목록에 대거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끌었다.

반면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물산 지분(1.88%포인트)을 확대해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제일모직(1.13%포인트) 등도 1%포인트 이상 지분을 확대했다.

이재화 기자

미래에셋운용 지분 변동 내용

(단위=%포인트)

종 목	직전 공시	이번 공시	변동내용
효성	13.87	9.20	-4.67
기아자동차	8.06	4.48	-3.58
GS건설	11.28	7.85	-3.43
현대건설	8.12	6.21	-1.9
대한해운	8.30	7.05	-1.26
동양제철화학	12.71	11.92	-0.79
SK케미칼	9.24	8.69	-0.55
현대중공업	5.42	4.99	-0.42
두산	13.26	12.94	-0.39
서울반도체	10.02	9.82	-0.2
한진해운	5.05	4.92	-0.13
한진	10.58	10.50	-0.08
LS	15.87	15.90	0.03
소디프신소재	12.74	12.87	0.13
동아제약	8.12	9.12	0.99
유한양행	13.37	14.50	1.12
제일모직	15.17	16.30	1.13
삼성물산	7.38	9.27	1.88

*자료=금감원 공시

서울경제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A12면

금융사 퇴직연금 교차가입 '활기'

국토농신한證-대신證, 삼성생명-화재이여 대한생명-한국證도 추진

증권사가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은행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퇴직연금 교차가입'이 활기를 띠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한생명과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맞가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자사 임직원의 퇴직연금은 반드시 다른 금융회사에 맡겨야 한다. 한국증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한생명과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생명 관계자

는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에 교차 가입한 금융회사는 국토농신한증권과 대신증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있다. 국토농신한증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퇴직연금은 금융회사마다 큰 차이가 없어 두 회사 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신증권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지 2년가량 지났지만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교차 가입은 아니더라도 운용의 효과 높이기 위해 복수의 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도 많다. 삼성증권은 우리은행과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은 LG손해보험과 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 등을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금융회사가 많지 않지만 퇴직신탁이나 보험 교차가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이 노사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법규상 규제사항이 아니어서 앞으로 회사 간 이해관계에 따라 퇴직연금 맞가입 및 복수사업자 선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금융권 73兆 'PF폭탄' 재각재각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금융기관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약 52조원에 달하는 건설사 PF 우발 채무액이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를 옥죄고 있는 것.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은행, 손해보험사 등 대규모 채권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채권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건설업계의 유동성 불안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건설사 우발채무액만 52조... 유동성 위기땀 증권사 직격탄

■대주단 협약 금융사 채권 규모 73조원 '시한폭탄'

3일 금융업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급조한 '건설사 대주단 운용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건설사 총채권액은 73조62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안에 근거해 설립된 대주단은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건설사들을 선별해 채권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는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채권유예 조치를 한 건설사는 1곳에 불과하다. 채권유예 소문이 돌면 자금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비쳐져 건설사들이 꺼리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 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있다.

대주단에 가입한 금융기관 중에는 은행권이 44조7123억원으로 건설사 채권 규모가 가장 크고 손해보험업계가 25조8329억원, 생명보험이 5122억원, 증권사 3510억원, 자산운용사가 1조278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채권 규모는 대부분 사모펀드로 대주단을 주도한 은행, 보험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투자한 펀드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채권금융기관들이 투자 사모펀

드를 통해서도 건설사 살리기에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다 사모펀드가 건설사 채권에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실화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운용사 중 KTB, KB, 한화, 유진, 등부, 동양자산운용사 등이 이런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는 증권사와 자회사인 운용사 모두 PF대출 채권에 노출된 상태다.

대주단에 가입한 금융기관 수도 은행권이 17개사, 증권업계 23개사, 자산운용사 13개사, 생보 10개사, 손보 11개사, 여신전문 20개사, 상호저축은행은 무려 85개사에 이른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경우 6월 말 현재 PF대출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연체율이 각각 24%, 14.1%로 높은 데다 갈수록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저축은행 부실 확대에 따른 여파가 타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자본 적은 증권사 PF발 악몽에 떨다

증권사의 경우 PF대출에다 지급보증액 등을 합할 경우 채권규모는 당초 3500억원에서 3조원 이상 대폭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유동성 위

기가 현실화할 경우 업계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 특히 은행이나 보험업계와 달리 자기자본이 적은 증권업계로서는 건설사 PF 관련 우발 채무액이 향후 증권사 존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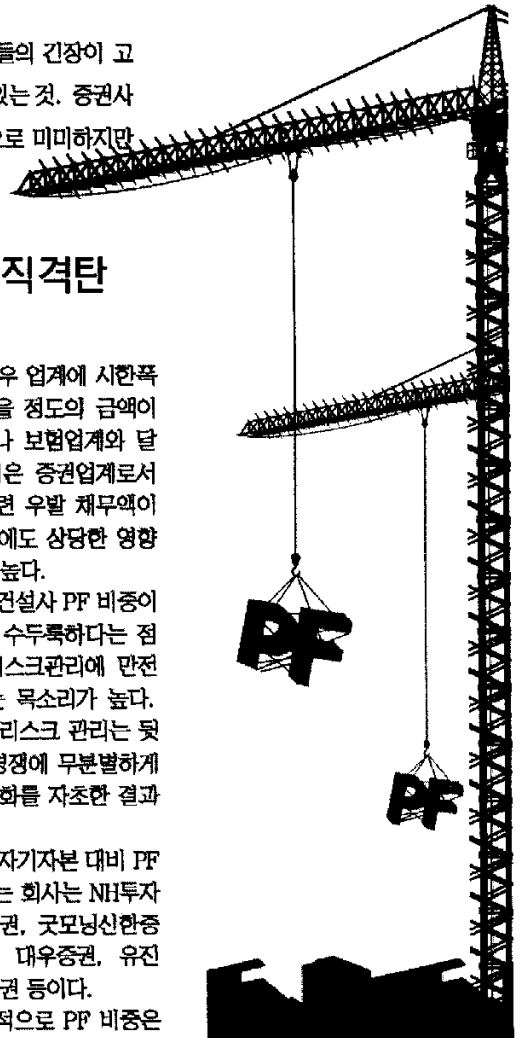
자기자본 대비 건설사 PF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증권사가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증권업계가 리스크 관리는 뒷전인 채 수익률 경쟁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대비 PF 비중이 10%를 넘는 회사는 NH투자증권, 동양증권, 굿모닝신한증권, KB투자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등이다.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PF 비중은 15% 정도다. 아직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위는 아니지만 향후 업계를 압박할 잠재 리스크가 될 우려가 높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경우 손실 발생 시 충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이중 자기자본이 적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자본잠식 등 예상밖의 충격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ktx@fnnews.com 김태경기자



구분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업
가입기관	17사	11사	10사	23사
채권규모	44조7123억	25조8329억	5122억	3510억
가입비율	100%	100%	100%	100%

가입기관	13사	6사	18사
채권규모	1조278억	471억	7조473억
가입비율	100%	94.4%	99.4% (7대기관 포함)

자료: 은행연합회

“건설사 신용등급, 그것이 알고싶다” BBB—이하 12곳 투기등급도 6곳

상장 건설사 신용등급 현황

기업명	신용등급(회사제)			기업명	신용등급(회사제)		
	한신평	한기평	한신정		한신평	한기평	한신정
대우건설		A	A	삼성엔지니어링	A+	A+	A+
현대건설	A+	A+	A+	한라건설		BBB+	BBB+
GS건설	AA-	AA-	AA-	삼부토건	BBB+		BBB+
대림산업	AA-	AA-	AA-	한일건설	BBB+	BBB+	
현대산업	A+	A+	A+	남광토건	BBB-	BBB-	
두산건설		A-	A-	신세계건설		A	A
금호산업	BBB	BBB		신성건설	B-		B-
경남기업	BBB-	BBB		진흥기업	BBB-	BBB-	
코오롱건설		BBB	BBB	삼호		A-	A-
동원산업	BBB-	BBB-		동양건설		BBB	BBB
삼환기업	A+		A-	중앙건설	BBB-		BBB-
계룡건설		A-	A-	씨엔우방	B		B
동부건설	BBB	BBB		신한	BB-		BB-
태영건설		A	A	일성건설	B+	B+	
백산건설	BBB-	BBB-	BBB-	한전KPS		AA-	
한신공영	BBB+	BBB	BBB	최흥디앤지	BB-	BB-	
고려개발	A-		A-	아이씨코퍼		B-	B-

자료:신용평가사 위합

건설사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투자등급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1일 대주단 평가 등을 거쳐 건설사를 A~D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A와 B등급은 이자감면과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고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개선택업), D등급은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공언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기업 회사채 신용등급은 AAA부터 D까지 10단계. A와 B등급은 ‘+’와 ‘-’를 붙일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16단계로 나뉜다.

신용평가등급의 정의를 보면 BB B-까지는 ‘투자등급’, 그 아래 즉 B

B+부터는 ‘투기등급’으로 분류한다.

지난달 31일 신성건설이 부도 위기를 맞으며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잇따라 신성건설 회사채에 대한 투자등급을 BBB-에서 B-로 6단계나 낮췄다. B-는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투기단계, 채무불이행 위험을 내포하는 C등급 바로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BBB-등급 이하 건설사에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 한국기업평가(한기평), 한국신용정보(한신정) 등 국내 3개 신용평가사에 따

르면 현재 상장 건설사 중 BBB- 이하 등급인 기업은 신성건설을 포함해 모두 12개.

풍림산업과 백산건설, 남광토건, 진흥기업, 중앙건설이 회사채에 B BB- 등급을 받고 있다.

BB+ 이하 투기등급에 속하는 기업도 6개사다. 씨엔우방 회사채는 한신평과 한신정으로부터 B 등급을 받았고 신한도 두 평가사에서 B B- 등급을 받았다.

일성건설과 최흥디앤지는 한기평과 한신평으로부터 B+ 등급과 B B- 등급을 받았고 아이씨코퍼레이션은 한기평과 한신정으로부터 B- 등급을 받았다.

현대증권 이창근 연구원은 “정부

가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육식 가리기’에 기초해 할 것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우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기준이 되어 건설업체를 구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잣대로 건설사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해 무척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만으로 건설업체의 등급을 나누기엔 부리가 있다고 일제히 반박하고 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신성건설이 BBB- 등급에 있다가 최근 B-로 떨어졌다고 해서 BBB- 등급 이하는 모두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말

도 안 된다”면서 “신용등급이 같아도 개별 기업에 따라 지배구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용등급만 놓

고 어느 등급 이하가 C가 되고 D가 될 것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salae@nnews.com | 이세경기자

“인터넷 포털서 직접 주식 거래하세요”

코스콤 '바로 허브서비스' 제공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은 4일부터 투자자가 포털 등을 통해 실시간 시세 조회 및 직접 주식매매 주문을 할 수 있는 '바로(VARO·Various Access & Right Order) 허브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3일 밝혔다.

네이버·다음 등 9개 포털사이트 이용 네티즌들이 주식거래 메뉴의 바로 매매 버튼을 클릭하면 실시간 시세 이용은 물론 직접 증권사로의 매매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메리츠·한양·NH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 고객이 이용할 수 있고 2차 대상은 대우·SK증권 등이다.

코스콤은 이달 중 이동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 무선허브 구성을 완료, 포털 및 무선 허브 참여 증권사를 10여개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유병은기자 rocinante@sed.co.kr

한국경제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A27면

美증시 대선직후 대체로 강세

뉴리더십 통한 단기 상승장 기대

과거 미국 증시는 대선 직후 대체로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 대선도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증시의 단기 상승장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투자증권은 3일 과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 폭이 커지는 등 경기 둔화 시기에 치러진 대선을 전후해서는 미국의 주요 경기지표와 주가 흐름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김승환 연구원은 “정보기술(IT) 버블이 붕괴되던 지난 2000년을 제외하면 대선이 있던 해의 11월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네 번의 대선이 치러진 11월의 S&P500 지수는 평균 1.6%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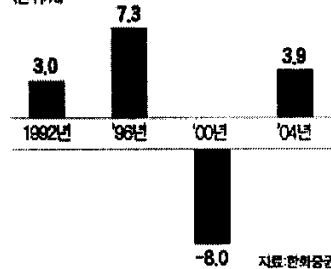
김 연구원은 “새로운 정부가 재

정수지 적자폭을 늘려서라도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가동하며 경기 하락 압력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주장하고 있고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도 감세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돼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기 부양 움직임은 가시화될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시 장단기적으로 모두 주가와 실물경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공황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권 교체는 네 차례씩 있었는데 정권 교체 이후 대통령 선거일부터 취임일(단기)과 대통령 임기(장기)의 주가 수익률이 모두 민주당에서 더 높았다는 것이다.

곽병열 대신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시 대공황

미 대선이 치러진 해 11월
S&P500 동락률
(단위%)



이후 당선된 루스벨트를 제외하면 취임일 즈음 미 증시는 모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권 교체 후 임기 내내 다우지수의 추세는 정권 말기로 갈수록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건 동일했지만 민주당의 경우 주가의 강도와 상승기간, 상승 빈도가 훨씬 앞섰다”고 지적했다.

임태근 대우증권 연구원도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이던 기간의 연평균 다우지수 상승률은 13.97%, 공화당 집권기에는 8.47%였다”고 밝혔다. 문해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입장바꾼 글로벌금융사 “원화 저가매수 노릴때”

글로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그동안 달러에 비해 약세를 보였던 한국 원화 등 아시아권 통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블룸버그뉴스는 최근 덴마크 3위 은행인 시드뱅크가 한국 원화 및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인도 루피아화를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 골드만삭스가 올해 들어 한국 원화 가치치는 달러 대비 29% 하락하며 아시아 통화 중 가장 부진했지만 향후 6개월 동안에 12%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원화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나은행 외환과생상품운용본부 이승준 과장은 “한·미간 통화스왑 체결 소식 이후 외국계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최근 돌았다”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500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이 말레이시아 링깃화와 중국 위안화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뉴스는 보도했다.

연초 이후 지난달까지 달러 대비 주요 아시아 통화의 가격 추이를 보면 원화, 루피아화(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인도)가 각각 38%, 18%, 24% 가량 하락했다.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화폐가치가 폭락한 것을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준형 기자**

“추가반등팬 미니펀드런 대비를”

향후 20% 오르면 3~5兆 이탈 예상

증시가 반등세를 지속할 경우 펀드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빠져 나가는 ‘미니 펀드런’ 가능성이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3일 펀드자금 동향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6월 이후 증시 상승기의 평균 환매율을 적용한 결과 증시가 향후 20%가량 반등할 경우 3조~5조원 정도의 펀드 자금이 환매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매율은 환매자금을 펀드 순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이 기간 월평균 환매율은 5% 정도다.

이 증권사 양은희 차장은 “국내 투자자들은 증시가 하락했다가 반등 국면에 접어들면 자금을 빼는 경우가 많다”며 “상승기의 환매율을 적용할 경우 이달 증시가 상승하면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최대 5조원의 자금이 환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코스피지수가 5.8% 상승하며 반등 국면을 보인 작년

2~5월 국내 주식형펀드의 환매율은 9.9%를 기록한 반면, 코스피지수가 7.3% 빠진 올 6~8월의 환매율은 2.1%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증시 급락에 따라 투자자들이 펀드 자금 이체를 잇달아 중단하면서 펀드로의 자금 유입액은 크게 줄어든 상태여서 펀드 자금 유출이 일어날 경우 ‘미니 펀드런’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국내 주식형펀드에 신규로 들어온 자금은 1조3080억원으로 코스피지수가 2000선 부근에서 움직였던 작년 11월 9조4970억원의 7분의 1 수준이다.

양 차장은 그러나 미니 펀드런이 일어난다 해도 본격적인 펀드런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현대증권도 이날 “과거 외환 위기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외환위기 학습효과’로 펀드 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반등장서 자사주 매입 '일석삼조' 노린다

✓ 자신감 상승 ✓ 주가 안정 ✓ 경영권 강화

주식시장이 반등세를 보이자 최대주주 등이 자사주를 잇따라 사들이고 있다.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 주요 주주들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체시스'의 사실상 지배주주인 어평곤 대표는 지난날 29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7만8000주(1.68%)를 장내에서 매입해 지분율이 기존 38.21%에서 39.89%로 늘어났다.

제일상호저축은행 유동현 회장(최대주주)도 장내매매를 통해 4만6170주(0.45%)를 늘렸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 회장의

지분율은 46.69%로 증가했다.

한일이화의 최대주주인 유희춘 회장도 장내매수를 통해 58만 1470주(1.47%)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회장의 지분율은 35.93%까지 올라갔다.

이 밖에 더존비즈온의 최대주주인 더존다스(소프트웨어 자문 및 공급업체)도 더존비즈온 주식 15만3800주(0.45%)를 장내에서 사들였다고 이날 공시했다. 더존다스의 지분율은 43.68%로 늘었다.

증권전문가들은 "자사주 매입은 소액주주에게 주가상승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수급상으로 주가를

안정시키며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반등세가 이어질 경우 자사주 매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자사주 매입 소식이 알려진 대부분의 자사주 매입 종목의 주가가 호조를 나타냈다. 체시스가 지난 주말보다 6.34% 급등한 755원에 장을 마쳤고 제일저축은행은 5.81% 오른 3280원에 장을 마쳐 5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일이화도 지난 주말보다 2.44% 오른 1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박승덕기자

매일경제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A13면

위기시대 재테크

반토막 펀드 슬퍼말고 증여해볼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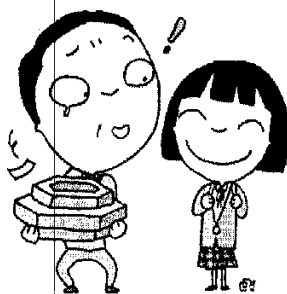
최근 재벌가들의 주식 증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신문 지면에 등장하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녀들에게 '부(富)'를 물려주겠다는 재벌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냥 '나와 다른 세상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자신도 이런 부자들의 재테크 전략을 모방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펀드 열풍이 불면서 국내 주식형펀드 계좌는 1700만개를 넘어섰다. 직장에서는 주변에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펀드 수익률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 고수익 국민재테크였던 펀드가 이제는 '반토막 애육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대부분 결단을 강요받는다. 여기서 빠져나올 것인지, 아니면 계속 들고



현재의 상속·증여세율	2009년
과표 3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34%
10억~30억원 40%	15억~30억원 25%
5억~10억원 30%	5억~15억원 16%
1억~5억원 20%	5억원 미만 7%
1억원 미만 10%	

있을 것인지 둘 중 하나다.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본전 생각에 펀드 환매에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만약 펀드를 장기로 가져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녀가 있을 경우 '펀드 증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식이나 펀드의 경우 증여시

가격으로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급락장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대규모 감세 개편안의 상속·증여세 감면 부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증여세가 크게 줄어든다.

만약 5억원 미만 펀드를 올해 말에 증여하면 10%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7%로 낮아진다.

이신규 하나은행 PB팀장은 "증여재산 공제제도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1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며 "만약 펀드가 이 금액보다 크다면 최근 주가가 폭락한 시점에서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손일선기자

코스피가 3일까지 시름 연속 상승하면서 펀드 투자자들이 큰 고민에 빠졌다. 폭락이 계속될 때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환매하겠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지수가 계속 상승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볼까' 싶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등락을 지켜봐야 했던 투자자 처지에서는 괜히 더 기다렸다가 추가 하락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반동하는 증시 전문가 7인이 본 펀드투자 요령

질문	답변	이유
환매해야 하나	지수 1300~1400 회복 전까지 기다려라	선부른 환매시 손실 확성 위험, 추가 하락 위험 크지 않아
환매한다면 어떻게	국내보다 해외펀드부터 정리	정확한 시장 정보 부재
	브릭스 등 원자재 노출 큰 국가부터	경기침체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
	낙폭 적은 펀드	많이 깨진 펀드가 반등장 회복 가능성도 높아
투자한다면 어떻게	성장주 중심의 국내 주식형	반등장 초기 수익률 높여
	인덱스 펀드, ETF	장기 투자시 안정적 수익률 가능
	채권형 펀드	금리차이 커 이자수익 확보 가능, 향후 금리인하시 수혜 가능

*도움말 = 김기봉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김재원 하나대투증권 펀드연구원, 이원기 KB운용 대표, 이재정 삼성증권 펀드리서치파트장,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운용 부사장,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펀드연구원, 황성택 트러스트운용 대표.

인덱스펀드·국내성장형 적립식 어때요

오랫동안 증시 부침을 지켜봐왔던 자산운용사 대표와 증권사 펀드리서치팀 전문가들은 지금 환매하는 것은 하락 고통만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은 자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손실폭에서 환매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는 것.

또 환매하지 않더라도 지금 자신이 가입한 펀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펀드로 갈아탈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투자가 적었던 개인이라면 지금이라도 투자에 나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실폭 줄인 뒤 환매해야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환매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원기 KB자산운용 대표는 "반등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회복 국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한국투자자산밸류운용 부사장은 "시장 급락으로 투자자들 불안감이 커져 환매 유혹도 크겠지만 이를 넘겨야 수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 대신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에서 환매를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봉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은 "자신의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환매 시점과 규모, 환매 후 투자전략 등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즉 원칙이 없다면 주가가 상승하면 환매를 생각했던 사람들도 기다려 보자는 마음이 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만 놓고 보자면 코스피가 1300~1400선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조금씩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손실폭이 -50% 정도인데 -40%로 손실을 줄이는 정도에서 성급하게 환매하기보다 지수 1300선 이후 환매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시장 비중 등을 따져보고 '쏠림'이 심한 신흥시장 펀드부터 줄이는 것이 낫다고 권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주식형 펀드 투자 비중(설정액 기준)은 국내가 40% 수준이며 중국과 신흥시장이 각각 17%와 20%를 차지하고 있다.

황성택 트러스트운용 대표는 "대부분 해외 펀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

이뤄진 만큼 해외 펀드부터 환매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또 펀드를 계속 보유할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현재 보유한 펀드 전망 등을 따져보고 갈아타기를 고려해 봐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일례로 최근 3개월간 국내 주식형 펀드 사이에서도 최고 18%포인트가량 수익률 차이가 발생했다. 그만큼 운용사와 펀드 선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황 대표는 "운용사와 펀드 운용 스타일과 성과를 정확히 분석해 유망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손실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투자라면 국내 주식형 펀드부터

저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국내 펀드, 특히 성장주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미 큰 폭 손실이 발생한 상황

에서 이를 만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국 성장형이기 때문이다.

김기봉 본부장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부담이지만 이를 감수할 수 있다면 성장형이 가치주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현재 펀드 등으로 손실이 없는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ETF) 가입을 고려해 보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고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채권형 펀드에 대한 추천도 나왔다. 이재경 파트장은 "채권은 현재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데다 향후 금리 하락(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욱·이재화 기자**

취재여록

요즘 증권가에서는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애널리스트'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들이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서 제기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이 일반투자자들의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활동 중인 사이버 애널리스트 또는 경제평론가 중 대표적인 인물은 '미네르바(필명)'다. 지난 8월 한 포털 토론게시판에 산업은행이 인수하려던 리먼브러더스의 부실을 예견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나이나 신원은 알 수 없지만 환을 급등이나 주가 폭락에 대한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온라인상에서는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힌다. 주가가 100포인트 넘게 오르내리던 지난달에는 미네르바가 '코스피지수의 2차 저점은 500포인트'라는 전망을 제시하는 바람에 일부 온라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돼 장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했다.

문제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의 개인적인 분석과 전망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지나친 맹신이 큰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아이디 '쥬라기'라는 인물은 인터넷 포털의 게시

사이버 애널리스트 맹신 유감



판과 자신의 블로그에 "A증권사가 리먼브러더스와 연계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과대포장'된 글을 올려 해당 증권사의 주가가 곤

두박질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A증권사가 '쥬라기'를 찾아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기도 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의 등장은 기존 제도권 애널리스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낳은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이들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특정업체의 주가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대한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통계나 부풀려진 소문이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마치 절대적인 시장 분위기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인 만큼 모두 '경제는 심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다.

문해정 증권부 기자 selenmochn@hankyung.com

펀드 등급제, 신뢰 확보가 문제다

금융당국이 펀드시장 환경 정비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지난 2006년 40건에 지나지 않았던 펀드 관련 민원이 올 상반기에만 117건으로 급증한 것은 소비자(펀드 가입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다. 대부분이 위험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이른바 불완전 판매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또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자의 다양화가 정착되는 추세인 지금 불완전 판매를 방지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펀드 상품 자체를 위험도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하는 펀드 등급제와 판매인력의 자격을 강화하여 3단계로 등급화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이른 시일 안에 감독당국자가 고객으로 가장해 판매창구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상품은 그 특성상 판매자(공급자)의 일방적인 설명만을 근거로 소비자(가입자)는 상품을 구매한다. 이 과정이 불투명할수록 가입자의 불이익 규모가 커지게 마련이다.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환헤지 상품인 키코가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상품을 위험도에 따라, 또 판매자 또한 자격을 강화하여 등급화한다면 '불완전 판매' 행태는 상당 폭 줄일 수 있다.

다만 펀드 상품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했을 때 그 등급 자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다. 추상적인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객관화, 계량화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 제도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판매 인력의 자격은 능력시험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지만 상품 자체의 위험도를 가능하리란 간단치 않다. 따라서 검토 중인 이 제도의 성패는 판단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자본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이면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설계사까지 펀드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장 환경 정비는 필요하다. 또 2010년으로 예정된 이른바 '금융상품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에 '불완전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 따라서 검토 중인 펀드와 판매인력 등급제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시가평가회계 완화 공식 발표

단기투자용 증권 평가손 반영 안해도 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식 채권 등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기업 이익에 반영해야 하는 금융상품들을 순이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3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결산 때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식 값어치가 떨어져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처한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3일자 A1면 보도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금융상품을 단기매매 증권(Held for Trading) 매도가능 증권(Available for Sale) 만기보유 증권(Held for Maturity)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단기매매 증권은 시가로 평가해서 기업 순이익에 반영해야 한다. 매도가능 증권도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순이익에는 반영되지 않고 자본항목 '기타 포괄이익'에 포함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만 나타난다. 만기보유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매입 원가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기업 보유 유가증권 회계 처리 어떻게 달라지나

유가증권 분류	평가 원칙	공정가치 변동액		바뀌는 회계 처리 방식
		당기손익 (손익계산서)	자본 (대차대조표)	
단기매매 증권	공정가치	반영	반영	단기매매 증권을 외
매도가능 증권		미반영	반영	부 감사인과 협의해
만기보유 증권(채무증권)		미반영	반영	만기보유·매도가능
	상각 후 원가	미반영	미반영	증권으로 변경 허용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유가증권시장, 협회증권시장 등에서 거래)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채무증권은 시장가격이 없으면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봄.

정부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이 검토하고 있는 제도는 단기매매 증권을 매도가능 증권 또는 만기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먼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 기존에는 매입가보다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순이익에 반영하고 떨어지면 손실을 순이익에 반영해 왔지만 이제는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이익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대신 평가손실이 있다면 자본에서만 차감된다. 주식 펀드 등이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은 만기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권은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돼 장부에 기록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를 바꾸는 형식으로 제도가 도입된다"며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사례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현재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이 논의 중이다. 이미 유럽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10월 1일 회계기준서를 고쳐 3분기부터 예외적인 손실을 입은 단기매매 증권을 손익계산서상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별개로 미국 등에서 발행된 해외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업들도 장부상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미국 회계기준(US GAAP)은 채권이 장외거래가격을 공정가액

보다 우선적으로 장부에 표시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채권을 갖고 있던 보험사 등은 채권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장부상 손실을 표시해야 했다. 하지만 미국도 공정가액을 우선적으로 장부에 표시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면서 한국 기업들도 해외채권을 장외거래 가격 대신 공정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는 시가평가(Mark-to-Market) 제도를 다소 완화한 것이지 시가평가 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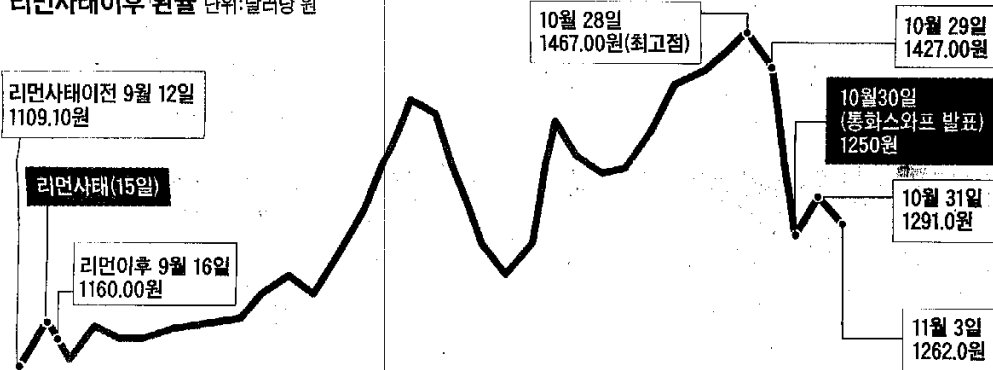
㉠ 단기매매 증권(Held for Trading): 기업 경영자가 1년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분류한 증권. 회계기준에 따라 이런 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매도가능증권(Available for Sale): 경영자가 1년 이내에 매각할 목적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둔 증권.

만기보유증권(Held for Maturity): 경영자가 애초부터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산 증권.

신현규기자

리먼사태이후 환율 단위:달러당 원



날씨가 풀렸다고 얼음이 금세 녹을까

환율, 아직은 겨울

심층
분석

‘통화 스와프’에도 왜 시원하게 안내려가나?

지난달 30일 한·미 통화스와프(swap·상호 교환) 협정 체결 이후에도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파이프를 확보해 놓았는데 왜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것일까.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9원 오른 1310.0원으로 개장해 45초 만에 1313.0원까지 올랐지만, 오후에는 달러를 팔자는 주문이 갑자기 쏟아지며 마감 5분 전(오후 2시55분)엔 1257원까지 밀렸다. 이날 하루 환율 변동폭만 56원에 달했다.

결국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떨어진 1262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통화스와프 협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눈치 보기가 치열해 쉽게 하락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리는 안정됐지만 현실이...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의 심리적 안정에는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하나대투증권 김재은 연구원은 “통화스와프가 발표된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177원이 증가 기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문제는 마음의 경색은 풀렸지만 현실의 외화 공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우리 은행들이 여전히

달러 조달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개장(오전 9시) 이전에 한국의 10월 무역수지가 5개월 만에 12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지만 환율은 개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다. 삼성선물 전 연구원은 “무

는 정부 대책에 춤을 추는 것이다.

NH선물 이진우 부장은 “1100원대 중·후반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환율의 안정을 말하기 어렵다”며 “아직 어떤 사건·사고가 더 터질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심리적으로는 안정됐지만

실물시장에 근본적인 달러대책 없어

전문가들 “장기적으로 1100원대 될 듯”

역수지 개선이 호재이기는 하지만 실물시장에서 달러 부족을 해결할 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환율의 급등락과 상관없이 대기업과 일부 공기업들의 달러 결제 수요도 꾸준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키코(KIKO) 피해기업들의 달러 매수세가 강하고, 아직 국내 은행들의 해외 달러 차입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달러 유동성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눈치를 보던 환율은 오전 11시 기획재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 종합대책’이 발표된 직후 곧바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발표 3분 만에 환율은 전날(10월 31일) 종가인 1291원대로 떨어졌고, 이후 급락세를 보였다. 환율이 시장의 수급보다

◆“달러가 돌기 시작한다”

그러나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단 외환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28일 하루 거래량이 25억 달러까지 줄었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달 30일 이후 50억 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다 환율이 오를 것으로 보고 달러를 움켜 쥐고 있던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외환은행의 한 딜러는 “이날 오후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물이 많이 나왔다”며 “시장의 거래가 정상화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윤기 경제조사실장은 “단시일에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1100원대 안팎에서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

매일경제

2008년 11월 04일 화
A37면

인사

1

■매일경제신문 ◇부국장대우 ▲판매국 수도권1, 2부장 오양호 ◇부장대우 ▲편집국 산업부 김성희 ▲광고국 광고3팀장 김한중 ▲공무국 운전2부 김홍길 ◇차장대우 ▲편집국 유통경제부 김주영 ▲" 부동산부 심윤희 ▲" 국제부 김민구 ▲" 스포츠레저부 오태식 ▲" 경제부 이진우 ▲" 부동산부

장박원 ▲" 지식부 박봉권 ▲" 사회부 최용성 ▲사업국 사업부 최병윤 ▲경리국 자금관리부 안선호 ▲판매국 지방부(영남) 노석균 ▲광고국 광고1팀 구홍현 ▲" 광고3팀 유창호

■매일경제TV(mbn) ◇보도국 ▲정치부장 부국장 장용수 ▲경제부장 겸 인터넷사업부장 정완진 ▲산업증권부장 정운갑 ▲사회2부장 성태환 ▲산업증권부 1팀장 차장 임동수 ▲산업증권부 기획제작팀장 차장 박병호 ▲정치부 차장대우 정창원 ▲산업증권부 2팀장 차장대우 은영미 ▲보도제작부 차장대우 정현석 ▲영상취재부 차장대우 김정훈 민병조 ◇기술국 ▲제작기술부 차장대우 배동수 ◇기획관리국 ▲관리부장 부국장대우 이광수 ▲관리부 차장대우 이준기 ◇미디어국 ▲미디어전략부 1팀장 차장대우 김창민 ◇광고영업국 ▲광고부 차장대우 황의준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홍준호 ▲워싱턴지국장 양상훈

매일경제

2008년 11월 04일 화
A37면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박정현 ◇편집위원실 ▲편집위원 김종면 ◇멀티미디어총괄본부 ▲미디어전략팀장 손석구 ◇편집국 ▲편집1부장 송종길 ▲편집1부 선임기자 장상규 ▲편집2부장 최홍재 ▲편집제작부장 윤상복 ▲정책뉴스부장 임창용 ▲사회2

부장 박건승 ▲정치부장 곽태현 ▲정치부 선임기자 박대출 ▲정치부 선임기자 이석우 ▲국제부장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이준규 ▲경제부장 오승호 ▲산업부장 류찬희 ▲사회부장 주병철 ▲문화부장 서동철 ▲문화부 선임기자 김성호 ▲미래기획부장 손성진 ▲체육부장 김민수 ▲사진부장 남상인 ▲사진부 선임기자 이종원 ◇뉴미디어국 ▲온라인뉴스부장 정기홍

■아시아경제신문 ▲기획위원 서인경 ▲편집국 편집부 부장대우 조영철 ▲이투데이 ▲편집국 산업부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김종길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인터넷부장 겸 기동취재총괄팀장 안종일 ▲국

제부장 문운홍 ▲정치부장 허만주 ▲기동취재 1팀장 이강미 ▲기동취재 2팀장 박용준

10월 무역수지 12억弗 흑자전환 수출 둔화되는 내년이 더 걱정

민간 연구소 무역 수지 전망
(단위=달러)

연구소	2008년 4분기	2009년 연간
국제무역연구원	69억	25억
삼성경제연구소	101억	37억
LG경제연구원	34억	-31억

10월 무역수지가 5개월 만에 흑자 전환하며 양적인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 증가율이 10%대로 급락하고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세계 경기 침체 영향에 따른 악영향이 수출 실적에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4분기에는 유가 하락으로 무역 흑자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율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0월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10%, 12%에 그쳤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각각 22.7%, 34.2%였다. 수입 증가율이 크게 둔화하며 10월 월간 무역수지는 5개월 만에 무역 흑자(12억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이 컸지만 수출입 모두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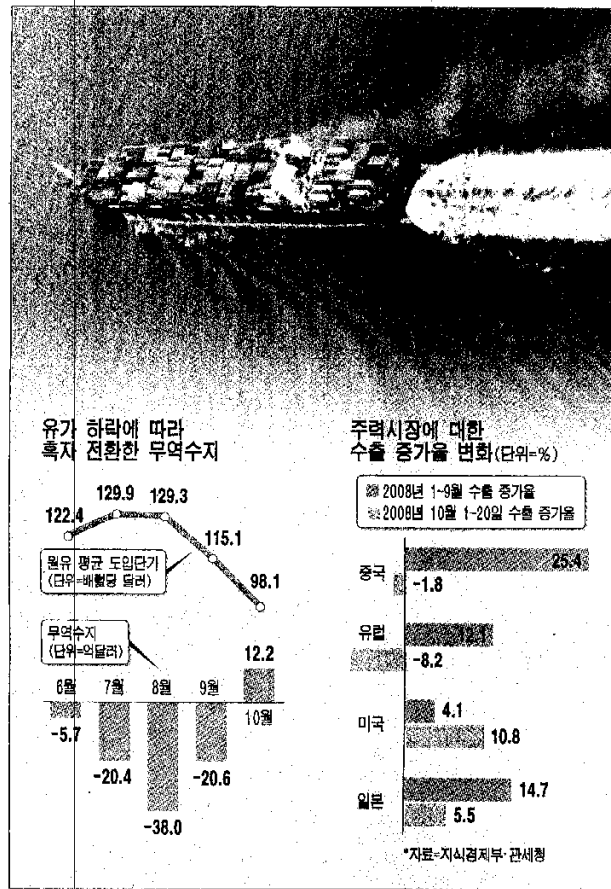
윤상하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 경기 침체로 중국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본격적인 수출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1~20일까지 중간 집계 이기는 하지만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 증가율도 -8.2%를 기록해 감소세로 반전됐다.

최근 달러, 엔화 대비 원화값이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수출은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 기록적인 엔고(高)로 대일 수출 여건은 개선됐지만 대일 수출 증가율은 5.5%로 한 자릿수대로 내려앉았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수출 증가율도 6.3%로 크게 둔화됐다.

품목별로도 수출 구성품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26.4%) 자동차(-14.



車·가전등 주력수출품 줄줄이 마이너스

3%) 가전(-28.4%) 컴퓨터(-37.0%)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면 선박류(117.8%) 석유제품(45.2%) 철강제품(40.1%) 무선통신기기(13.5%)는 호조세를 이어갔다. 10월 무역 흑자에 힘입어 올해 1~10월 누계 무역 적자는 134억5000만달러로 줄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60억달러 적자로 전망을 수정했지만 다시 계획을 수정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약 4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연간 90억달러대 무역 적자는 감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4분기에 34억~101억달러의 무역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내년 이후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

구원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이제부터 시작됐다"며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개도국에 대한 수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20~30%대 성장을 거듭했던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 한 자릿수로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내년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수입 증가율은 0%에 가깝게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무역수지는 소폭 흑자 내지는 균형을 이룰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국제무역연구원은 내년에 각각 37억달러, 25억달러 무역 흑자를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31억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정부는 대내외 변수가 많다고 판단해 내년 무역수지 전망치를 12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은행들 가게 대출까지 조인다

연말 '건전성 관리' 비상... 정부 "돈 풀라" 채근에도 제 코가 석 자

얼어붙은 은행 창구가 좀처럼 해동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이 갖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에 이어 가게 대출까지 조이고 있다. 일부 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또 다른 은행은 이달부터 신규 대출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증가세를 보이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9월 말 71조1219억원에서 10월 말 71조585억원으로 634억원 줄어든 것이다.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전달보다 줄었다. 잔액이 줄지 않은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더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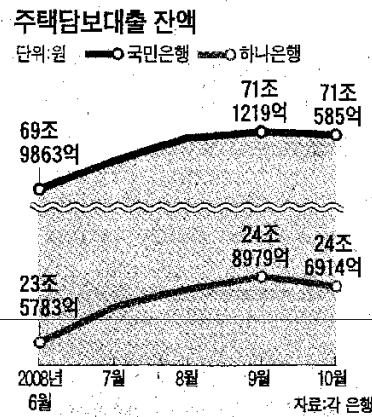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대출할 돈은 별로 없는데 정부는 자꾸 중소기업에 돈을 풀라고 한다"며 "가게대출을

줄여 이틀 중소기업에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만기 연장을 해줄 뿐,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올 스톱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들며 은행에 돈을 풀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좀처럼 시중은행들의 돈주머니는 풀리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장 제코가 석자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연말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며 "가뜩이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져 어려운 데다 한층 강화된 건전성 기준이 올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전성 관리는 은행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한 시중은행장은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이 심해 은행이 함부로 대출자산을 늘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무리해 대출을 늘렸다가 외국인 주주들이 다 떠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올 초 강화된 BIS 기준 도입 이후 3개월만 연체에도 부실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묻지마 대출'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돈을 풀되 건전성도 유지하라는 정

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주문도 은행들을 헛갈리게 하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한쪽으로는 은행에 중소기업과 가게에 자금을 지원하라면서 다른 한편에선 은행의 외형 경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로 은행권에서 100조원 안팎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지만 아직까지 대출 확대에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풀 돈이 가게와 기업까지 가는 데는 시차가 있다"며 "정부의 유동성 공급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추가 인하 등의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역시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돈을 충분히 풀고 있는 만큼 시장의 자금 경색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안혜리 기자

hyeree@joongang.co.kr

10월 물가 4%대로 뚝

유가 하락에 4.8% 그쳐

10월 소비자물가가 4.8% 상승하는데 그쳤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8% 상승해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4%대로 상승률이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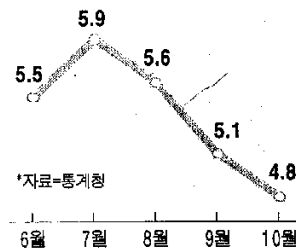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석유류 가격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소 둔화된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5.9%까지 올랐다가 8월 5.6%와 9월 5.1%를 기록하는 등 다소 안정되는 기미다.

특히 농수산물 하락세가 커 생선, 채소, 과일류 가격을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6%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경유 가격도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지난달에 비해 가격이 각각 2.9%, 1.2% 하락했다. 식료품 등 생활물가지수는 4.8% 상승해 지난 3월(4.9%) 이후 7개월 만에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농산

소비자물가 4%대로
(전년 동월 대비, 단위=%)



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10월에도 5.2% 올라 서비스와 공업제품 등에서 아직 물가상승 압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훈 기자

매 일 정 제

변액보험 가입때 소득증빙 의무화

금융위, 무리한 영업 차단...판매 전문회사 허용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팔 때 고객 소득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하는 등 보험 관련 소비자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신설되고, 이들이 보험사와 협상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고 파생상품 등 자산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팔 때는 소비자 소득, 보험계약 목적 등을 파악해 서면 확인을 받은 뒤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적합성의 원칙)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간주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합성의 원칙을 지키려면 소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며 "영업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성 보험 상품인 변액보험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고려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보험상품 자율화	사후 신고 상품→자율상품으로 전환
자산운용 자율화	파생상품 운용규제를 네거티브로 개편 (다만 총액원하는 6%→5%로 축소)
업무영역 확대	투자자문·일임업 허용 지급결제업무 허용 부수업무 범위 확대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	보험료 협상권 부여 배상책임 도입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상품 판매·권유시 '적합성' 원칙 (소비자 경제사정에 적합한 상품을 팔 것)
보험사기 조사 강화	금융위의 건강보험금단에 대한 진료 여부 확인 요청

또 민원 발생의 주범인 전환계약 금지를 명문화했다. 전환계약이란 보험사가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해약토록 유도한 뒤 새 보험으로 전환시키거나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면서 기존 보험을 해약시키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판매플라자)도 허용된다. 기존 대리점보다 업무 범위가 확대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자본금 10억원 등)을 갖추면 펀드도 팔 수 있다. 특히 보험사와 협상해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 '보

험료 협상권'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설계사 축소 등 다른 판매 채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엔 매출액에 비례한 영업보증금을 위탁토록 하고 배상 책임도 명확히 지운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 지급결제의 경우 대상 자산과 시행 시점을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급결제 허용 대상 자산은 일단 지급 보험금 등에 한정된 뒤 추후 확대하겠다"며 "시행 시기는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시행 경과를 바

가며 결정하겠지만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문 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수업무 규제도 네거티브(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음)제로 바꾼다. 이에 따라 보험사도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상품 심사도 대폭 개선됐다. 대부분의 상품(전체의 75~85%)은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율 상품으로 분류되고 새로운 보험료를 등을 적용한 일부 상품만 사전 신고를 거쳐 팔도록 했다. 자산 운용 규제도 풀려 파생상품과 부동산 투자 대상 등이 확대됐다. 다만 파생상품 투자 한도는 현행 총 자산의 6%에서 5%로 축소된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으로 고객의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며 "파생상품 등 자산 운용 규제도 완화돼 보험사가 종합투자회사로서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이 건강보험공단 등에 진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김현식/경제팀 기자 realist@hankyung.com

서울경제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A12면

주택·부동산 PF·중기 대출등

금융사 잠재리스크 집중 점검

금감원, 은행 종합검사는 내년 상반기로 연기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모든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잠재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중소기업 대출과 유동성 관리, 장외파생 거래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금융권의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잠재 리스크가 있는 부문에 대한 중점 테마점검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재보다는 실태조

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융권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직 세부적인 점검 대상과 체크리스트는 완성하지 못했다"며 "익스포저(위험노출)가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한 종합검사는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보험·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계획대로 실시된다.

/우승호기자 derrick@sed.co.kr

G20, 새 금융체제 '불협화음'

유럽 "감독 강화" 미국 "반대"
15일 정상회의 합의 불투명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참여국 간의 이견으로 공동 대응책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새로운 국제 금융기구 설립을 놓고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견해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세계의 주요 은행은 물론 글로벌 파생상품까지 감시할 권한을 가진 국제 금융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대신할 규제기구로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창설된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

령도 이번 회담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며 고든 총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기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넘겨줘야 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계속 이어질 논의의 시작일 뿐이며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파생상품 규제가 자국 금융시스템의 자율성이나 자유시장의 원칙을 손상할 우려가 있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이번 회의에서 공동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또 다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경제학자 등은 "국가 간의 근본적인 이견 때문에 G20 회의가 '경제의 바벨탑'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김창우기자

kcwsssk@joongang.co.kr

파이낸셜
뉴스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007면

美 최대 5천억弗 추가 경기부양 전망

골드만삭스, 실업자 구제·공공사업 확대 '발등의 불'

【뉴욕=정지원특파원】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침체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과 같은 특정 부문이 아닌 경제 전반에 대한 부양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경기부양책 규모가 최대 5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경기침체 진입이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실물경제학자들은 실업자 구제,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사

업 확대, 빈곤층 무료 급식(푸드뱅크) 등과 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경제 공약으로 감세와 공공사업 확대 등의 '민생 안정책'을 주요 골자로 한 19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제시한 상태이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 역시 2일(이하 현지시간) 대선 후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데

임덕 회기'에 부양책의 의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열리는 4일 상·하원 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다수석 확보가 예상되고 있어 부양책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추가 부양책의 중요한 성공 열쇠는 '규모'라면서 약 3000억~5000억달러는 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이코노미폴리시인스티튜트의 에단 폴락

정책 분석가는 "부양책이 침체로 타격받은 서민층에 얼마 만큼 혜택을 돌리느냐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미국인들이 빈곤함에 직면할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소득 증가가 제한된 반면 세금과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급등하면서 상대적 빈곤함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jjung72@nnews.com

IMF 빈주머니 ‘오일머니’로 채우나

브라운 영국총리 “IMF 구제기금 지원” 요청
사우디 중앙은행 부총재 “자금 지원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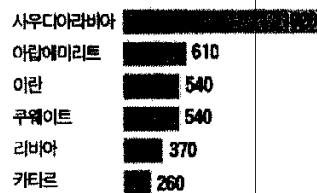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세계경제에 중동 산유국들이 새로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선진국의 고위관료나 재계 거물들도 잇따라 중동을 방문해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중동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지난 1일과 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을 방문, 중동 산유국들이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확충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브라운 총리는 1일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중동 국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의 고유가로 1조달러의 오일머니를 벌어들였다”며 “금융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산유국들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총리는 특히 “중동 산유국들이 IMF 구제기금 확충에 수천억달러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내 생각으로는 사우디가 지원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는 3일 구제금융을 위한 자금 고갈 위기에 처한 IMF의 자금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우디 중앙은행의 모하메드 알 자세르 부총재는 이날 아테네 소재 그리스 중앙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우

중동 주요 산유국의 석유수출액
(상반기 기준, 단위: 억달러)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

디 국왕과 정부 관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집단적으로 극복하려는 어떤 제안에도 동참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러한 뜻을 내비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브라운 총리는 2일에는 셰이크 하마드 빈 자심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카타르도 IMF 구제기금 확충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알타니 총리는 “우리도 세계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할 것”이라며 공조의 뜻을 내비쳤다.

브라운 총리가 이처럼 중동 산유국에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은 최근 금융위기가 증폭되면서 IMF가 자금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최근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헝가리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등을 지원하면서 300억달러 가량을 쏟아부었다. 현재 IMF가 갖고 있는 자금 규모는 총 1700억~1800억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전문



중동을 순방 중인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왼쪽)가 2일 카타르를 방문,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중동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자금 확충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도하 연합뉴스

가들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를 지원하기에는 IMF의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우려로 최근 서방 선진국 지도자들이 중국이나 중동 산유국과 같이 현금이 풍부한 국가들에 도움을 요청하

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동 국부펀드 규모는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동 산유국들이 IMF에 선뜻 주머니를 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권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美의회 1500억달러 2차 경기부양

부시 퇴임전 추진...한미FTA도 동반 처리 여부 주목

【워싱턴 윤경호·뉴욕 위정환 특파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나면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2차 경기부양책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이미 마련된 1680억달러의 1차 부양책에 이어 연내 최소한 1500억달러 전후 규모 추가 부양책이 이어지는 것이다.

의회 다수당을 이끌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후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레임덕 회기'에 2차 경기부양책을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레임덕 회기란 의회 정국 회기 종료 후 현 행정부가 바뀌기 전에 현안 처리를 위해 마련되는 추가 회의 기간을 말한다.

2차 경기부양책은 민주당 주도의 회에서 여러 번 추진돼 왔지만 부시 행정부가 재정적자 확대에 인한 부담을 내세우며 거부 의사를 보여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600억달러 규모 2차 경기부양책이 이미 지난 9월 통과된 상태다. 상원에도 금액은 비슷하지만 내용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는 비슷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이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 경우 양원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행정부로 송부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내용은 1차 경기부양책에서 담고 있는 세금 환급이나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달리 주요 지역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등 토목·건축 공사를 통한 고용 창출이 주를 이룬다.

펠로시 의장은 2차 경기부양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이미 1500억달러 규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달 13일에는 학계, 업계, 행정부 측 등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대책회의를 하기도 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회의 후 부양책을 최대 3000억달러까지 늘릴

미국 2차 경기부양책 내용과 절차

규모	1500억달러 전후
추진 시기	대선 후 부시 행정부 임기 내
의회 비준	연말 레임덕 회기에서 처리
내용	실업 수당 확대, 저소득층 무료 급식 확대, 건설 분야 등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 통한 고용 창출 등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부시 행정부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골드만삭스는 자체 이코노미스트를 통해 2차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려면 3000억달러에서 최대 5000억달러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부양책이 마련된다면 고용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외에 빈곤층 무료 급식(푸드 스탬프)과 실업수당 확대 등으로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차 부양책이 세금 환급에 초점을 둔 만큼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개인과 가구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차 경기부양책이 대선 후 레임덕

회기 때 처리될 경우 이와 함께 현안으로 남아 있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에서 비준 처리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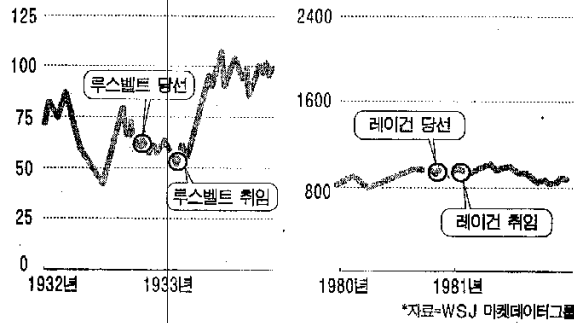
민주당 주도 의회는 콜롬비아와 파나마에 대해서는 내용 수정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견지다. 하지만 한국과 FTA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문에서 불균형을 문제 삼아 사실상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자칫 한국을 제외하고 콜롬비아와 파나마만 처리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홀로 남은 한·미 FTA 처리가 오히려, 홀가분해지느냐 아니면 더 불리해지느냐는 향후 미국 내 정치 구도 변화와 맞물려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후보가 집권하면 새 행정부 출범 전 과거 짐을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당내 일부 주장에 힘입어 한·미 FTA가 연내 처리될 실낱 같은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테 임 기 제

루스벨트·레이건 대통령 취임 후 주가·다우존스지수



美증시 오바마랠리 올까

루스벨트 집권 첫해 다우 86% ↑

레이건 고금리정책으로 '게걸음'

'불황기에 백악관 주인이 바뀌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미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과거 선례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과거 위기 속에서 경제를 부흥시킨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1930년대 대공황기에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며 취임 첫해 다우존스지수를 86%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1980년대 초반 두 자릿수가 넘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고수했으며 그 결과 임기 초반 증시를 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대통령은 임기 중 증시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며 경기부양책을 성공시킨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였던 루스벨트의 12년 재임 기간 주가 상승률은 무려 194%에 이르렀다. 그러나 루스벨트 역시 당선 후 취임까지 주가가 17% 곤두박질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1933년 3월 4일 취임 후 열흘 동안 증시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루스벨트와 달리 레이건의 취임 첫해 성적표는 암담했다.

레이건은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책을 추진했지만 다우존스지수는 그해 8% 급락했다. 그러나 재임 기간에 지수를 135% 끌어올리며 초반 부진을 만회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고물가를 잡고 감세책이 경기 회복세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달리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

WSJ는 "오바마 후보는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에 분배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부자들의 소비가 상당 부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오바마 후보는 공약으로 배당금과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오바마 당선이 증시에 반영된 만큼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지적도 나왔다. 앤디 라페리에 인터내셔널전략 & 투자기획 대표는 "이미 오바마 당선이 유력한데도 다우존스지수가 지난달 10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는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깜짝 랠리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누가 되든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증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지 않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기와 비교할 때 현재 경제지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9월 미국 실업률은 6.1%였지만 루스벨트가 취임한 해인 1933년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대공황기보다 글로벌 정책 공조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위안이다. 당시 선진국은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심했지만 현재는 중앙은행 간 금리 인하 공조를 비롯한 각종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있다.

한편 AP통신은 이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증시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바닥 수준에 접근했다는 게 그 근거다. 특히 매케인 지지자들은 올가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오바마 지지자들은 주가가 민주당 대통령 임기 동안 더 많이 올랐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향휘 기자

유럽 경기부양 ‘드라이브’

佛, 기업 감세·獨, 640억弗 투입-“유로존 기술적 침체 빠져”

유럽 주요국들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잇따라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우대 조치를 도입했으며, 독일은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한 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럽 지역에서도 경기 둔화세가 선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로이터통신과 니혼게이아이신문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향후 3년간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및 제조 부문에 총 1750억유로(약 28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2010년 1월까지 기업 자산 및 임금에 부과하

는 ‘직업세’를 면제해 연간 10억유로(약 1조 6000억원) 정도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어려움을 겪는지를 감시하는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독일 정부는 64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5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일 “투자 촉진책을 만들어 기업과 고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 유지를 위한 기금을 만들어 조업 단축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회사원이나 실업자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지구온난화 대책의 하나로 주택 개축 지원제도를 확충하거나, 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탈리아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R&D 분야에 재투자되는 이익을 과세 대

유럽 주요국 경기대책

프랑스	·기업 투자 촉진 위한 세금우대 조치 도입 ·고용유지 기금 확충
독일	·64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5일 확정 ·신차의 자동차세 면제 추진
이탈리아	·R&D에 투자되는 이익은 과세 대상서 제외 ·경영난에 빠진 기업 지원 기금 설립 검토
영국	·경기부양 위해 2010,2011년 예산 조기 집행

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금 창설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0,2011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 학교 병원 주택 등의 공공 건설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5개국) 경제가 이미 ‘기술적 침체’에 빠졌으며, 내년엔 성장 둔화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는 1.2%로 지난 9월10일 전망(1.3%) 때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또 내년엔 0.1%, 2010년은 0.9%로 1.0%를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인환 기자 janus@hankyung.com

매일경제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A11면

도이체뱅크 “우린 돈 필요없어”

공적자금 거부...코메르츠뱅크는 82억유로 지원받아

“여기 공적자금이 있으니 빌려가라.” “조건 있는 공적자금, 필요없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각국 정부가 은행권을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자금을 거부하는 은행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독일 정부와 독일 민간은행들.

AP통신은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가 2일(현지시간) 정부의 금융 분야 구제계획에 따른 공적자금을 신청할 계획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고 보도했다.

요제프 에커만 도이체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정부가 금융 위기에 신속히 대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이체뱅크가 어려운 시기에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에커만의 발언은 앙겔라 메르

켈 독일 총리가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 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한 만큼 이제 은행들과 금융회사들도 정부 대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미 지 실추에 대한 민간은행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이체뱅크와 코메르츠뱅크, 포스트뱅크, 드레스드너뱅크 등 주요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 돈과 함께 따라오는 ‘연봉 제한’ 조건과 자칫하면 ‘부실은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미지 실추’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독일 민간은행들은 자금을 거부하고 있어 공적자금을 둘러싼 독일 정부와 민간 은행 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중순 은행간 대출 보증 4000억유로와 은행

의 자본 확충 지원에 800억유로, 대출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 200억유로 등 총 5000억유로(약 6370억달러)에 달하는 금융시장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이에른 란데스뱅크(LB)와 히포 리얼 에스테이트(HRE) 그리고 코메르츠뱅크만이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독일 2위 은행인 코메르츠뱅크는 82억유로의 공적자금을 받고 최대 150억유로 규모 채무보증도 제공받기로 독일 정부와 합의했다.

독일 4위 은행 히포 리얼 에스테이트는 지난달 말 독일 정부에 500억유로에 달하는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국영은행인 바이에른 LB는 지난달 21일 54억유로의 공적자금을 받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조현정 기자

日 주식형 투신에 개미들 다시 모인다

“닛케이지수 바닥쳤다” 7개월만에 개인 투자 자금 유입

일본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보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일본 주식으로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7개월 만에 개인 투자 자금이 돌아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가 추가형 공모투신 약 2,760종을 조사한 결과 신규 구입에서 해약·상환금을 뺀 10월 중 자금 유입액은 770억엔이었다. 투신의 유입 자금 초과

는 7개월 만이다.

일본 주식 투신 중에서도 특히 닛케이(日經)평균주가 등에 연동하는 ‘인덱스형’ 상품의 자금 유입이 눈에 띈다. 닛케이지수 연동형 등 5종의 투신을 운용하는 미쓰비시(三菱)UFJ투신의 10월 자금 유입액은 총 140억엔으로 전달의 5배를 넘었다. 은행 창구에서도 닛케이지수 7,000이 무너진 지난달 28일을 전후해 투신 신청이 집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A23면

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식형 투신의 자금 유입은 닛케이지수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일본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東京)증권거래소의 개인투자자 매매도 10월 하순까지 5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채권으로 운용하는 투신은 10월의 해약·상환액이 신규 구입액보다 2,200억엔 더 많았다. 외국채 투신의 자금 유출 초과는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으로 엔화 상승에 따른 환차손 우려에다 미국, 유럽의 금리 인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akim@hk.co.kr

헤지펀드, 아시아 시장 이탈 가속

유출액 8월 21억弗서 9월 43억弗로 급증
GSA 이어 라미우스도 홍콩지점 폐쇄 검토

헤지펀드 자금의 아시아 시장 이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흥국 펀드의 헤지가 늘어나고 투자자금의 선진국 송환이 확대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헤지펀드 철수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지역 펀드 유출액은 지난 8

월 21억달러에서 9월 43억달러로 배 이상 확대되며 유출이 늘어난 유일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신문에 따르면 110억달러 규모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미국계 헤지펀드인 라미우스는 홍콩 지점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라미우스의 앤서니 밀러 공동경영자는 “홍콩 면허 반납은 비용을 효율

적으로 절감하는 최선책이자 자금을 미국과 유럽으로 재분배하는 방법”이라며 “뉴욕과 런던 지점을 통해 아시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런던 소재 GSA캐피탈 역시 지난해 개설했던 홍콩 지점을 최근 폐쇄했다.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모든 자원을 한 데 모아 중심부에서 운영하길 원한다”고 파시드 사드 하세미 GSA 공동경영자는 말했다.

TPG-엑손은 미국 본사를 손대지 않으면서도 아시아 지부 직원의 30% 가

량을 최근 해고했다. 싱가포르에서도 콩코디아가 최근 사무소를 폐쇄했고, 탄탈론캐피탈은 중소형 펀드를 청산하는 등 사업 규모를 줄였다.

신문은 이 같은 자금 이탈이 고객 헤지 등에 대비해 각 헤지펀드들이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운영비용을 삭감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홀타운’ 투자에 치중하게 된 것도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다. 한 업계 소식통은 “정말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지점에서 이익이 계속 나고 있을지라도 먼저 모국 시장을 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콩과 싱가포르 감독기관은 “몇몇 펀드가 인출세를 보이고 있지만 광범위한 사업 청산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원기자 heawk@sed.co.kr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A14면

칼라일, 5억유로 바이아웃펀드 설립

유럽 IT기업 M&A 노려

세계 최대 사모투자기업인 칼라일그룹(사진)이 5억3,000만 유로(6억7,300만달러) 규모의 바이아웃(Buy-out) 펀드를 설립해 금융위기 속 투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바이아웃이란 부실 기업을 인수해 정

성화한 후 재매각해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칼라일그룹이 바이아웃 펀드 설립을 통해 유럽 정보기술(IT)기업 인수합병(M&A)을 주로 노리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새 펀드의 이름은 '칼라일 유럽 테크놀로지 파트너스 2'로 인수 대상 기업은 자산

CARLYLE GROUP

규모 2,000만~2억유로의 미디어·이동통신·항공 기업이다. 앞서 만들어진 '칼라일 유럽 테크놀로지 파트너스 1'은 운용자산 규모가 새 펀드의 절반에 못 미치는 2억2,200만유로로, 수익률은 36%였다.

'유럽 테크놀로지 파트너스 2' 펀드의 운용담당자인 데이빗 피츠제럴드는 "최근 언론에 소개되는 펀드들은 보통

신용위기 때문에 거의 투자를 중단한 펀드들"이라며 "하지만 시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펀드들은 차입도 한다"고 설명했다.

칼라일그룹은 220억달러를 모기지 담보증권(MBS)에 투자했다가 지난 3월 큰 손해를 봤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칼라일그룹이 새 펀드를 통해 이전의 손해를 만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중요일보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E09면

신흥시장 주식, 값은 싸졌지만...

"국가 경제체력 약해져 추가 하락 배제 못해"

지난달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신흥국 증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초 대비 70% 가까이 하락한 것을 비롯해 상당수 신흥국 증시가 반 토막 났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신흥시장 전체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은 6.8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신흥시장의 PE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9배, 2002년 정보기술(IT)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8배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상황이 과거의 위기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신흥국 증시 주식은 정말 싼가? 이 질문에 투자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더 내릴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가 국가부도 위험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사태 이후 증시에서 국가위험(컨트리 리스크)은 별 고려 대상이

안 됐다. 외환위기에 든 신흥국도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붙자 국가부도 위험이 다시 높아졌다. 아이슬란드를 포함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린 신흥국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연구원은 "경상수지 적자를 외국인 투자로 매우면서 외환보유액을 축적한 나라의 안정성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인도와 러시아·말레이시아·브라질이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중국은 외환보유액도 많을뿐더러 자본 통제로 외국인 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평가도 있다.

갑자기 부각된 국가 위험은 각국 증시의 적정 주가 수준을 다시 평가하게 만들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신흥시장 국가 주가수익비율(PE)

국가	적정 PE(배)		현재 PE(배)
	1월	10월	
신흥시장 전체	10.8	6.2	6.8
중국	13.9	8.8	5.9
인도	11.8	6.6	8.4
대만	14.0	7.5	8.9
인도네시아	11.7	5.5	5.0
말레이시아	14.0	7.9	9.2
브라질	12.8	7.4	4.4
러시아	12.9	6.1	2.6

*10월 28일 종가. 중국은 MSCI치이나 기준.
자료: 블룸버그, 한국투자증권

따르면 지난달 신흥국 증시의 적정 PE는 연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가가 내려 싸보이기는 하지만 기초체력에 비해 싼 건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실물경제 침체로 기업 이익이 앞으로 급속히 줄 가능성도 크다.

윤 연구원은 "시장의 실제 PE로 적정 PE보다 높은 인도·대만·말레이시아는 앞으로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전세계 주식 '바겐세일'

글로벌 금융위기 강타 주가 40년전 수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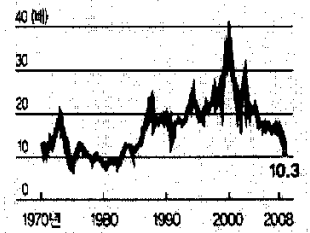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면서 주가가 4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마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 투자자들이 반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의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증시는 '검은 10월'을 보내며 지난 1970년대 수준보다 더 하락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지수(ACWI)를 반영했을 경우 전 세계 주식들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 10월 30일 현재 10.3배로 1970년대 평균인 11.4배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PER가 25배 수준이었던 인도 증시는 현재 10배까지 떨어졌으며 중국과 러시아 증시의 PER도 각각 9배와 4.4배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해 "이제 투자할 만큼 충분히 싸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카디안 자산운용의 로널드 프레스 최고투자책임자

MSCI를 반영한 주가수익비율



자료 : 씨티그룹

(CIO)는 "대공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재 모든 주식이 너무 싸졌다"고 지적했다.

hanvni@news.com | 오미영기자

朝鮮日報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B04면

아시아 대부분 상승세... 중국만 하락

글로벌 증시

11월 첫 거래일인 3일 아시아증시는 중국을 제외하고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였다. 호주·유럽·영국 등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 전망이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악의 10월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증시에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홍콩 증시는 본토 은행주·부동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2.69% 상승한 1만4344.37을 기록했다. 주말 리 차오 인민은행(PBOC) 대변인이 "중국 주요 상업은행들에 대출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대만 증시는 양안 관계 기대감으로 금융주가 반등하면서 124.40포인트

(2.55%) 급등한 4995.06으로 거래를 마쳤다. 중국·대만 양국 정부 협상단이 금융거래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 합의할 것이라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다. 호주증시 역시 전일 대비 190.3포인트(4.78%) 급등한 4173.00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은 인민은행의 은행대출규모 통제 중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약세를 보였다. 상하이종합지수는 3일 0.52% 하락한 1719.77로 마감했다. 이날 하이퉁증권은 비유통주 12억주가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가를 기록해 증권주를 포함한 금융주를 끌어내렸다. 조용찬 한화증권 중국EM팀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3분기 기업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 4분기와 내년 1분기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지수에 악재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일본 증시는 '문화의 날'을 맞아 휴장했다.

최형석 기자

투자의 귀재들도 반토막 났네

버핏, 136억달러 손실
주식 담보가치 떨어져
대출금 상환 압력 받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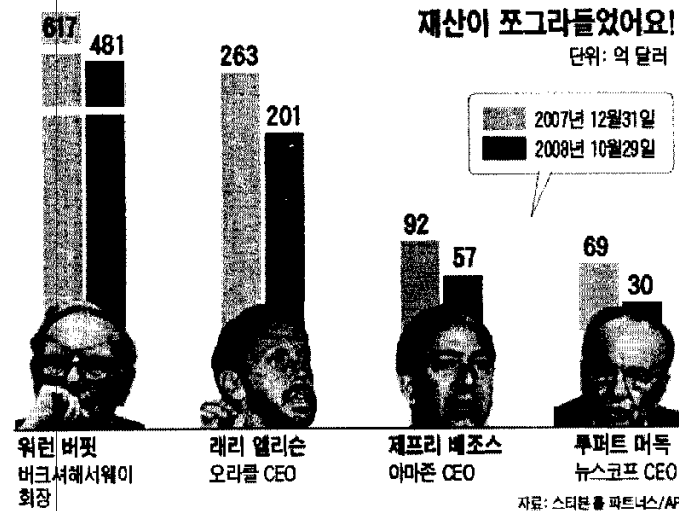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글로벌 주식시장을 강타하면서, 미국의 '내로라' 하는 세계적 투자가들과 유명 CEO 등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반 토막 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AP통신은 3일 돈 버는 재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사들이 주식시장 폭락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주식을 상투에서 사고, 돈을 빌려 샀다가 상황에 몰리는 전형적인 아마추어 투자자의 실수를 저질렀다.

주식시장이 등락해 아직 최종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이 불명에 명단의 위에는 '오마하의 현인(賢人)' 워런 버핏(Buffett)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이 올라 있다. 버크셔해서웨이의 주가는 올 들어 22% 떨어져 시가 총액으로 136억 달러를 잃었다.

오라클 창업자이자 CEO인 래리 엘리슨(Elison)의 보유 주식은 올해 62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Ballmer) 사장은 51억 달러, 아마존의 제프리 베조스(Bezos) 사장은 35억 달러, 뉴스코프의 루퍼트 머독(Murdoch) 사장은 39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추가 담보 제공 요구에 몰려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체사피크 에너지사의 CEO 오브리 맥클렌던(McClendon)은 보유 지분의 95%에 해당하는 3100만주(5억7000만 달러)를 지난달 중순 처분했다.

또 억만장자인 커코리언(Kerkorian)은 올 초 포드자동차 주식 1억4100만주를 주당 약 7.1달러에 구입했으나, 이후 포드의 경영사정 악화와 자동차업계의 매출 감소로 730만주는 주당 2.43달러, 2640만주는 주당 2.01달러에 각각 처분했다.

투자한 회사의 경영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칼 아이칸(Icahn) 투자자도 올 초 야후의 지분 약 5%를 사들였으나, 지난 6월 말 주당 20.60달러이던 야후 주가가 최근 1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5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박중세 특파원 jspark@chosun.com

3개월 리보, 리먼사태후 최저

2.86%로 16일연속 하락

【뉴욕 위정환 특파원】 국제 자금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가 각국의 잇따른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신용경색이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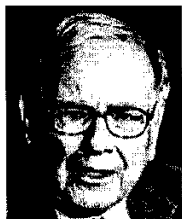
3일 영국은행연합회(BBA)에 따

르면 3개월짜리 달러 리보는 지난주보다 0.17%포인트 떨어진 2.86%를 기록해 16일 연속 하락하면서 3%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서로 돈 빌려주기를 꺼리던 은행 간 자금경색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루짜리 리보도 0.39%로 0.02%포인트 떨어졌다.

블룸버그뉴스는 리보의 하락은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의 신뢰 상실을 막기 위해 최대 3조달러에 달하는 긴급 자금지원에 나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칸데스뱅크 바덴-뷔템베르크의 트레이더인 잔 미시는 블룸버그뉴스와 인터뷰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난 며칠 동안 기업이나 은행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이 없었다는 점이라면서 이번주에도 자금시장의 상황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워런 버핏
-136억달러



래리 엘리스
-62억달러



칼 아이칸
야후 주식
반토막

금융위기에 버핏·아이칸도 울었다

175개사 CEO 주식가치 1년새 49% 폭락

‘투자자의 귀재’들도 금융위기에서 무사하지 못했다.

MSNBC는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각국 주요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명 투자자들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비롯해 커크 커코리언과 칼 아이칸 등 월가 큰손뿐만 아니라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MS) CEO 등 미국 대기업 CEO들이 급락장에서 투자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지난 몇 달 사이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것.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람은 버핏 회장. 버핏 회장 소유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은 올해 들어 22% 하락(136억달러 손실)하면서 481억달러로 감소했다.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칸은 올해 초 이후 지분 5%를 6900만달러에 매입했는데 지난 6월 말 주당 20.60달러였던 이후 주가가 현재 13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면서 보유 주식 가치가 사실상 반 토막 났다.

이외에도 세계 2위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의 창업주인 래리 엘리스

는 62억달러를, MS의 발머 CEO는 51억달러의 손해를 기록했다.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와 뉴스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독 회장은 각각 36억달러와 10억달러의 손해를 봤다.

컨설팅회사인 스티븐 홀 조사에 따르면 175개 주요 기업의 CEO들이 보유 중인 주식 가치는 지난 1년 사이에 평균 49%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버트 헨슨 미국 다트머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어떤 투자자든 시장을 항상 이기는 것은 어렵다”면서 “바다에 엄청난 풍량이 일면 어떤 배라도 침몰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할 때) 상황이 훨씬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정 기자

머독 “中·인도가 글로벌 지도 바꿀것”

경제대국 변신 새 중산층 등장

중국과 인도의 경제대국으로의 변신이 향후 수십년간 세계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호주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사진)이 2일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머독 뉴스코프 회장은 이날 호주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중국과 인도는 공산주의와 카스트제도에 의해 재능이 감춰진 오랜 역사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중국과 인도의 성장은 향후 30년 내 30억명에 이르는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어내 글로벌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머독 회장은 “중국과 인도와



같은 성장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것”이며 “중국과 인도 국민들은 과거에는 궁핍했지만 자신들의 기술을 개

발하고 삶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로 가득찬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앞날에 대해 고부적으로 평가하면서 지난 수십년간 인류 재능을 꽃피우는 커다란 변혁을 보았으며 인류의 황금시대가 이제 막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진 기자 kioh@hankyung.com

머니투데이

2008년 11월 04일 화요일
015면

꾸준히 주식에 투자해야할 이유

월스트리트저널

최근 증시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꾸준히 주식을 사들이는' 전략이 합리적인지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주식투자보다는 보다 안전한 머니마켓펀드(MMF) 같은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그럼에도 꾸준히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보도했다.

◇장기전에 감하다=투자에서 가장 상무적인 표현은 '시장은 반드시 반등하므로 어려울 때도 계속 주식을 사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신용위기와 증시 폭락으로 한껏 불안해진 투자자들에게 이런 말은 공허해 보인다.

WSJ는 그러나 '아직 투자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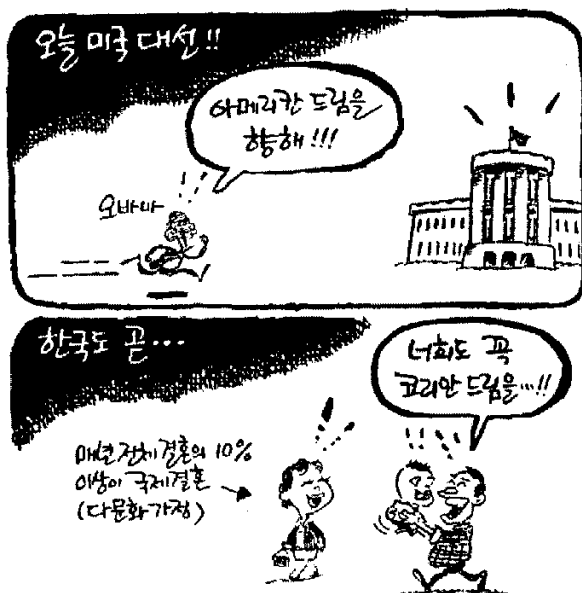
이 많이 남은 40대 이하 젊은 근로자들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가하락기에 저가매수를 멈춘다면 누적수익률이 낮아져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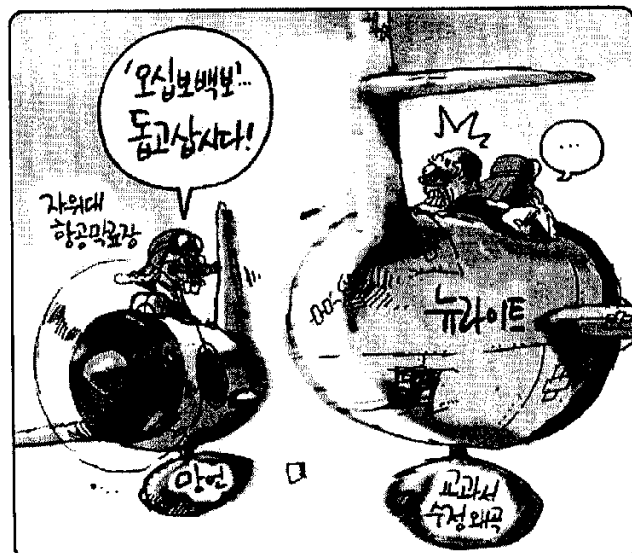
◇감성을 배제한 투자가 가능하다=점기적으로 투자하는 습관의 최대 감점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감정을 배제한 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왓의 401K플랜서비스 대표 더 코먼은 '시장이 안좋다고 투자를 멈추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시기를 모색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실패한다'며 '(팔 때와 살 때를 정확히 짚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로또에 당첨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혜영 기자 biyima@

신경부 朝鮮漫評 kmshin@chosun.com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한겨레 그림핀



장봉근 jang@hani.co.kr

서울만평

백무현 bmh@seoul.co.kr



14兆 더 풀어 경기부양

강남·서초·송파外 모든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용적률도 300%까지 허용키로

“권력구조 바꾸는 개헌 해야”

대정부질문 “단임제 안 돼” 주장 쏟아져

법원 “신문사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

‘다음 아고라 게시물 복구해달라’ 가처분신청 기각

대중국 수출 마이너스

〈對〉

7년 만에 줄어… 세계 경기 침체 여파

재건축 소형 의무 완화

서울 강남·서초·송파 빼고 투기지역 풀어

미국의 선택은 누구?

美 오늘 대선 투표… 내일 오전 11시쯤 윤곽
〈한국 시간〉

남중수 KT사장 사전영장 청구

납품업체 선정-인사청탁 명목 3억3000만원 받은 혐의